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November 24-30, 2020

결과보고서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Contents

프롤로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0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07

I.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행사배경 및 목적	11
행사개요	12
행사내용	15
- 개회식	15
- 패널토론	23
- 라이브 토크	31
- 온라인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교육활동 전시관	44
- 온라인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APCEIU 홍보관	61
- 온라인 체험관: 포토 방명록, 스탬프 투어	65
- 폐회식	72
행사 주요성과	74

II. 활동발표

1일차	77
2일차	94
3일차	106

S2AEM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프롤로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0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07

프로로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 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사교류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교육교류사업은 지난 9년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태지역 7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라오스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5개월간 배치되어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지 배치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7개 교류대상국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간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들 및 동료교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 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교육활동 경험의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에 참가한 양국의 교사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교과수업 및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현지교사와 협력하여 교류대상국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낯선 환경에서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경험을 통해, 참가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역량을 갖춘 글로벌 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교실을 넘어서 현지학교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과 교육 경험과 교수법, 교실 및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교류를 함으로써, 배치된 국가, 그리고 소속 본국의 교육현장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교사·학생·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사업 참여국가 내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교사들은 다문화 교육 수요에 부응해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교류대상국의 교사들은 국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연수를 받고 국내 협력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비단 사업에 참가하는 파견·초청교사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성과가 아닙니다.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는 파견·초청교사와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파견 및 초청교사의 전공·문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의 수혜자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도 향상은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제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형 교육협력 ODA 모델 발굴의 초석입니다. 하드웨어 지원에 초점을 둔 기존의 ODA 방식과 차별화하여, '우수교원'이라는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교육 ODA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협력체제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S2AEM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I.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행사배경 및 목적	11
행사개요	12
행사내용	15
- 개회식	15
- 패널토론	23
- 라이브 토크	31
- 온라인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교육활동 전시관	44
- 온라인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APCEIU 홍보관	61
- 온라인 체험관: 포토 방명록, 스탬프 투어	65
- 폐회식	72
행사 주요성과	74

1. 행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학교 현장은 이에 발맞추어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역량과 감수성이 학교공동체 모두에 의해 발현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21세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자기 변혁적인 관점의 전환과 역량 강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에게도 더욱 현장감 있는 체험적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아태지역은 최근 지역 내 이동과 교류, 협력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 분야의 교류와 상호이해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차세대를 위한 역내 상호호혜적 교육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9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을 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증대된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 인식 제고와 글로벌 역량 강화가 주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사교류 사업을 구상,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했다. 2012년 몽골과 필리핀을 교류 대상국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말레이시아, 2015년 베트남, 2016년 태국, 2017년 캄보디아, 그리고 2020년 라오스가 합류하면서 현재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간의 양자 간 교류사업으로 성장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매년 한국과 교류 대상국의 교사들은 서로의 학교현장에서 한 학기가량 직접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서로의 교육 비전과 혁신적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한편,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다.

SSAEM(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컨퍼런스는 본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 및 학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종합성과보고회이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참가자 및 관계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증대 및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와 교류대상국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향상을 확인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SSAEM 컨퍼런스는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배치학교와 대상국 교육부가 참가 경험을 공유하여 이후의 사업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는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들의 사업 참가 이후 후속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되었다. 2012년도부터 9년간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약 1,200명의 국내·외 교사들의 다양한 후속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였다.

2. 행사개요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 **회의명** : (국문)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문)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 **주최** : 대한민국 교육부
- **주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일시** : 2020. 11. 24(화) ~ 30(월)
- **장소** : 하이브리드형 행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전 일정 행사 전용 신규 제작 홈페이지(PC 및 모바일)를 통한 영상(실시간 및 녹화) 송출
 - 라이브 특: 오프라인 스튜디오 (행사 실황 홈페이지 중계)
- **주요 참가자** : 약 450명
 - 대한민국 교육부 관계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 대상국 교육부 및 현지협력기관 대표단
 - 초청 및 파견 기참가자 후속활동 우수사례 발표자
 - 2019년도 파견 및 초청 교사
 - 2019년도 초청교사 배치학교 및 파견교사 소속 학교 관계자
 - 2012~19년도 사업 기참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
 - 일반 참가자(다문화교육 전문가 등)
- **대상국** :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 **언어** : 한국어-영어 (영상 외 라이브 특 동시 통역 제공)

- 주요 구성 및 내용

본 컨퍼런스는 개회식·폐회식, 패널토론, 참가자 대담(라이브 특), 국내·외 기참가 교사 활동 발표, 온라인 전시관 및 홍보관, 그리고 온라인 체험관(이벤트)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귀빈 참석자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및 축하 공연이 준비되었으며, 대한민국과 대상국 교육부의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토론 후에는 지난 9년간 파견교사로 활동한 한국교사들이 함께하는 라이브 특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참가 파견교사 및 초청교사, 그리고 초청교사 배치학교 관계자의 후속활동 우수 사례 발표가 3일간 이어졌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12~'19년도 참가교사의 교육활동을 담은 포스터, 영상물, 활동 결과물 등 60점의 전시물이 게시되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은 공모전 수상자의 시상 언박싱 영상, 사전 녹화를 진행한 참가자들의 NG 영상 등이 포함된 폐회식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세부일정

DAY 1. 11. 24(화)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11:00	개회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최은희
	환영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임현묵
	축사 이완 샤릴(Iwan SYAHRIL)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국장
	축하공연 2012-2019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11:30	패널토론
12:10	2020 SSAEM 컨퍼런스 영상 상영
12:20	라이브 톡
13:25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발표 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진영대창초등학교 유형림 (필리핀, 2019) Kasarinlan Elementary School SDO - Caloocan City, Danilo Gervacio Osorio (필리핀, 2015) 부민초등학교 손소담 (말레이시아, 2018) Sekolah Kebangsaan Bebuloh,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말레이시아, 2018) Santhormok Primary School, Sok Thida (캄보디아, 2019)</p>
14:05	2020 SSAEM 컨퍼런스 영상 상영
14:15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발표 I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공업고등학교 임현빈 (태국, 2019)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Rosdiana Rawung Arnold (인도네시아, 2018) 대구영선초등학교 곽진영 (말레이시아, 2015)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장병철 (몽골, 2016)</p>
14:55	1일차 행사 종료 알림

DAY 2. 11. 25(수)

시간	프로그램
15:00	2일차 행사 시작 알림
15:05	<p>활동발표 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보라초등학교 신혜선 (태국, 2017) Thanonhakkpittayakom School, Kamonrat Chimphali (태국, 2019) 팔마초등학교 김강 (인도네시아, 2017) Kinderfield School, Vinny Sutriani Raranta (인도네시아, 2018)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신현진 (베트남, 2017)</p>
15:45	2020 SSAEM 컨퍼런스 영상 상영
15:55	<p>활동발표 I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상관중학교 김명석 (캄보디아, 2017) SDI Al-Azhar Cairo Palembang, Yeni Hartati (인도네시아, 2019) 강원명진학교 이정환 (인도네시아, 2017) Chea Sim Santormok High School, Monyneath Vann (캄보디아, 2019)</p>
16:35	2일차 행사 종료 알림

DAY 3. 11. 26(목)

시간	프로그램	
15:00	3일차 행사 시작 알림	
15:05	<p>활동발표 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Keningau Vocational College,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2017) 금장초등학교 박지혜 (태국, 2019) Tondo High School, Melandro De Los Reyes Santos (필리핀, 2016) 인천도화초등학교 서정래 (베트남, 2016)</p>	
15:45	2020 SSAEM 컨퍼런스 영상 상영	
15:55	<p>활동발표 II (국내·외 참가교사 및 배치학교 후속활동 우수사례)</p> <p>인천은지초등학교 김경미 (필리핀, 2016)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 Ma. Eirish Santos Zulueta (필리핀, 2015) 임진초등학교 이호석 (태국, 2017) Sekolah Kebangsaan Minden Height, Henna Sehgal (말레이시아, 2017))</p>	
16:35	폐회식	
	폐회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임현묵
	시상식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영상&사진 공모전

3. 행사내용

개회식

• 개회식 개요

- 일시 : 2020년 11. 24(화) 11:00 ~ 11:25 (25')

- 사회 : 김경미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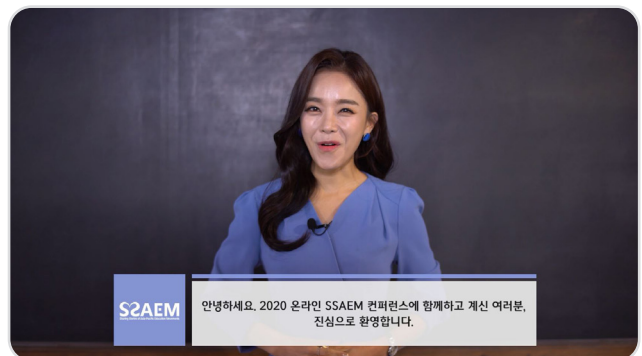
- 언어 : 영어 사회 (한국어 자막)

- 내용

올해 SSAEM 컨퍼런스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도 동안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셨던 국내외 선생님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교육 활동 경험과 참가 이후의 후속 활동을 활발히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개회식에서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최은희 국장의 개회사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임현묵 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이완 샤릴의 축사 영상에 이어 6개국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축하 공연 (Virtual Choir) 이 진행됐다.

- 주요 사진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1:00~11:03	개회 영상	2020 SSAEM 컨퍼런스 오프닝 영상
11:07~11:10	개회사	최은희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11:11~11:14	환영사	임현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11:15~11:21	축사	이완 샤릴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국장
11:21~11:25	축하공연	노래제목 : We're All In This Together

개회사

최은희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COVID-19 대유행으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오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기 중이라 분주한 중에도 한국을 포함하여 멀리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배치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임현욱 원장님과 담당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에 시작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COVID-19로 초청과 파견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과 배치학교에서 일회적인 참가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글로벌 교육 역량 제고와 인재 양성에 힘써주셔서 오늘의 성과보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교육 분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 최전선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 그리고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COVID-19 이후에는 시간적·공간적·물리적 제약이 없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지구촌 학생, 교사들의 온라인 교류도 오프라인을 넘어서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글로벌 역량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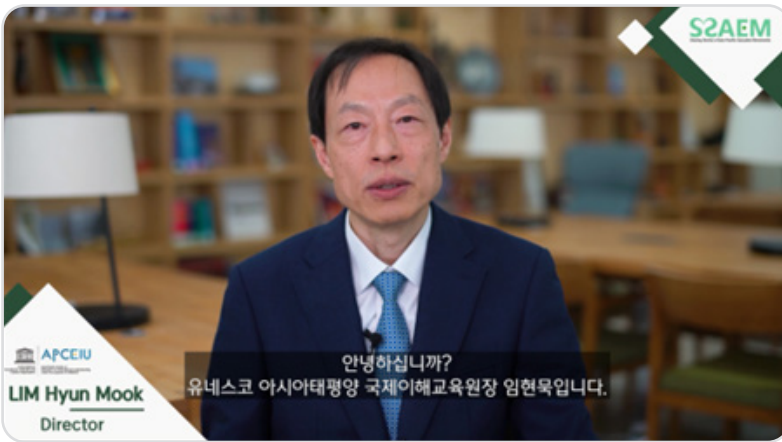
대한민국 교육부는 이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선생님들께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국경을 초월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교육 분야 변화의 새 도전을 준비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SSAEM(쌔) 컨퍼런스에 사례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서 COVID-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환영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나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파트너 국가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이 사업의 주인공이신 각 국가의 선생님들께 특별히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9년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민국 교육부의 최은희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사업 담당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2012년에 몽골, 필리핀 두 국가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개 국가로 교류국이 확장되었으며, 1,2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 간 교육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세계시민 교육 활동에 전념해주신 모든 사업 참가 교사 여러분과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전국 시·도 교육청과 배치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안타깝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를 통해 사업 참가 이후 지난 9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아태지역의 교육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고, 사업 참여국 교육 당국의 평가와 제안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향후 우리의 교육교류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

이완 샤릴 (Iwan SYAHRIL)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국장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를 대표하여,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사업 참가국의 교육부 관계자, 교육교류사업 참가자, 교사 및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약 2천여 분이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교육교류사업은 문화 교류를 통해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실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가 간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교육교류의 경험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통찰, 지식과 연계, 그리고 평생 지속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교류사업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COVID-19 발생 초기부터 관련 복구 활동을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초등 교육에서 학습 결손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네스코 통계 전문 기관인 UIS가 2020년 5월 25일 발표한 <COVID-19의 교육 영향> 통계가 보여주듯이 학습 결손의 위험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피해 단계를 중간 수준으로 가정할 때, 0.6년 정도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아이들의 효과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7.3년에서 7.9년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학교 휴교로 인해 평균 시험 점수가 최대 25%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배경에는, 많은 국가의 인터넷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 약 45%가 농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이 없거나 부족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임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학습 결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매일 TV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제는 전국 TV 방송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단시간 내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 정부들과 NGO, 민간 부문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도와 실현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교육의 위기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의 기여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이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협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육은 제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COVID-19로부터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집마다 찾아가서 학습할 때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

축사

이완 샤릴 (Iwan SYAHRIL)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국장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육자들 사이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감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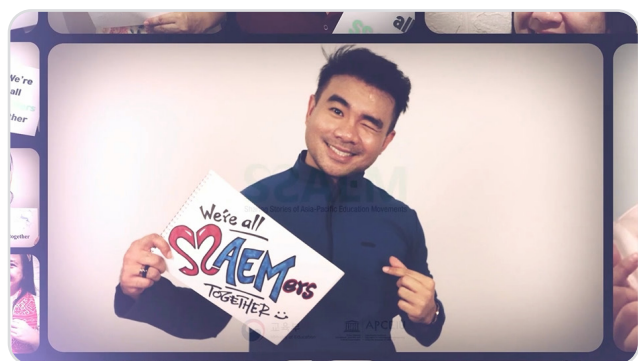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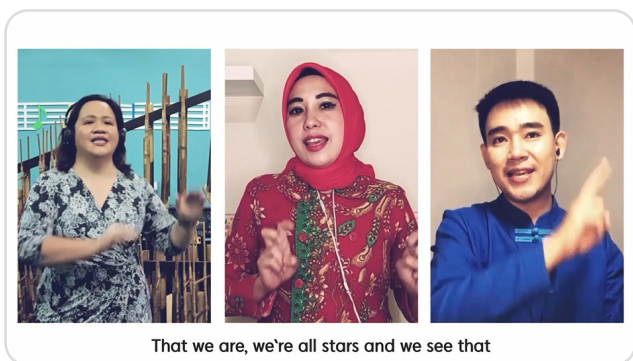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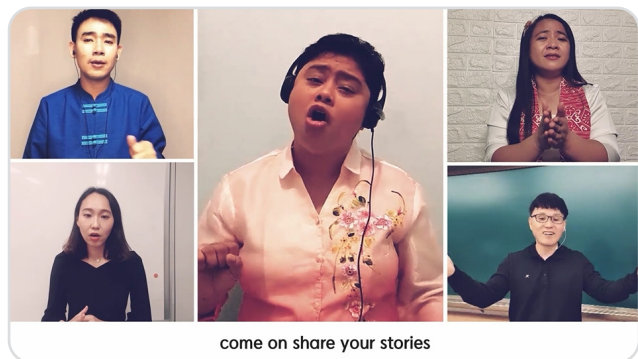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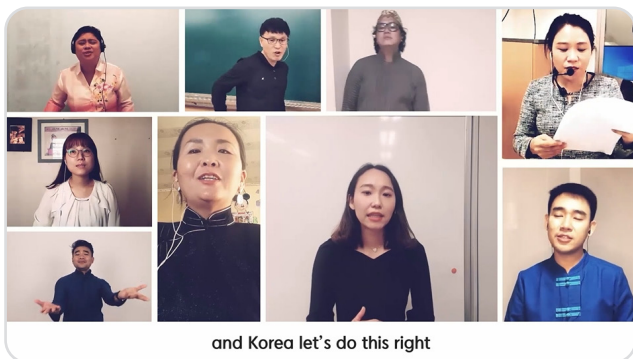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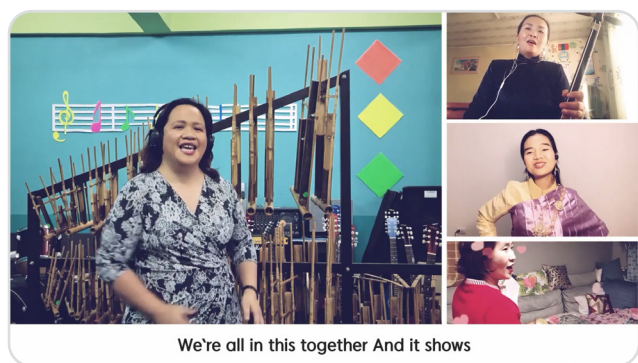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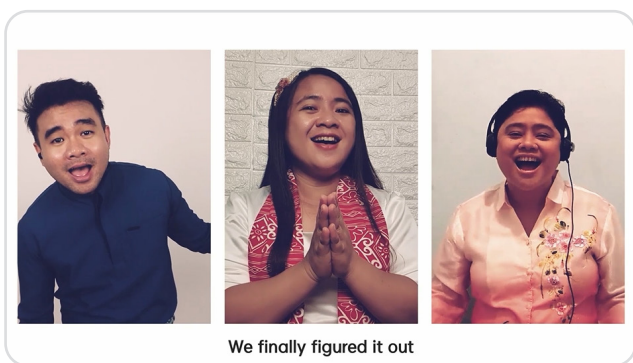
이 전 세계적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복구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변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체계에 적합한 방법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COVID-19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접근이라는 우리 모두의 목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교육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었습니다.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주관해 주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세상, 특히 교육 분야의 중대하고 의미 있는 논의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개회 영상



• 축하 공연 영상



패널토론

• 패널토론 개요

-일시 : 2020. 11. 24(화) 11:28 ~ 12:18 (50')

-좌장 : 임원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장

-패널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안주란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교육국제화담당관
2	Ms. 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3	Mr. Ahmad Rafee CHE KASSIM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4	Ms. Oyunbileg OIROV	몽골 교육과학부 교육협력국 사무관
5	Ms. Nunuk SURYANI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교원인사관리부 국장
6	Mr. Kun RE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7	Ms. Yupha IEMSANGUAN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8	Ms. Margarita Consolacion C. BALLESTEROS	필리핀 교육부 교육협력국 과장

-진행 순서

내용	발표자	소요 시간
오프닝 (패널토론 구성 안내)	임원진 실장	2분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안주란 교육국제화담당관	2분
질문 1. (라오스) 라오스가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서 예컨대 교사의 전문역량 개발, 교육의 세계화 등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어떤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세요.	임원진 실장	1분
질문 답변	라오스 패널	2분
질문 2. (라오스 외 6개국)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사업 참여 이후의 참가자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에 다년간 참여하면서, 그동안 본 교육교류사업이 당국의 교사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참가자의 성과가 사업 참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필요할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진 실장	1분
질문 답변	대상국 패널 6인	12분

<p>질문 3.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교육과 국제 교류의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폐쇄와 교육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임원진 실장</p>	<p>1분</p>
<p>질문 답변</p>	<p>대상국 패널 7인</p>	<p>15분</p>
<p>정리</p>	<p>임원진 실장</p>	<p>1분</p>
<p>교육교류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패널토론 마무리 말씀</p>	<p>안주란 교육국제화담당관</p>	<p>2분</p>
<p>클로징</p>	<p>임원진 실장</p>	<p>1분</p>

패널 토론 내용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대한민국_안주란,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교육국제화담당관

올해로 9년이 된 교육교류사업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꾸준히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2012년 2개 국가로 탄생한 이 사업이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의 190명의 교사들을 초청 및 파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참여 교사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교사들 및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교육교류 분야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파견 및 초청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참가했던 파견 및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력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후의 후속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강의, 자료개발, 각종 교류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청 및 파견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활동 종료 후 본국의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써 본 사업의 파급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다문화 교육을 훌륭하게 지속할 수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배출해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배우고 느낀 것을 사업이 종료된 후 수많은 학생들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1

라오스가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서, 교사의 전문역량 개발, 교육의 세계화 등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요? 또한, 본 교육교류 사업을 통해 어떤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2

본 사업이 당국의 교사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참가자의 성과가 사업 참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필요할지 공유해주시고.

Question 3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교육과 국제 교류의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폐쇄와 교육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_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Q1: 교육교류사업은 라오스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라오스 교사들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모든 라오스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 세계시민으로서 규범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라오스 교육체육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라오스의 <교사교육 하위 분야 개발 계획(2021-2025)>도 '교사의 질적 향상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부는 지속적인 교원능력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교사 및 교사 교육자 육성 계획>에서 '라오스의 질 높은 교육 달성을 위해 전문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국내외적 협력을 장려'하는 것을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아래 교사들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학적 기술 개발이 가능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Q3: 저는 단호하게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습의 질과 성공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교사의 질과 효과'에 기초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교류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히 다양한 교수 접근법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교수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주변 동료 교사들, 배치학교 학생들,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문화적 지식 및 통찰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확실히 COVID-19 대유행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처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켰습니다. COVID-19는 물리적 대면 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으로의 교수법과 학습법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으며, 다양한 학습 접근법을 혼합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 대유행을 겪으며 줌(Zoom) 미팅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기술을 이용해 끝없는 여정인 교원능력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캄보디아_Kun RE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Q2: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캄보디아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끌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훌륭한 분들로 각자의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캄보디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역량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이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 참여 이후 학교에 복귀한 후 어떻게 도전과 발전을 해나가는지 알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참가 교사들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나 기타 관련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APCEIU와 공동으로 후속 설문을 진행하여 참가 교사들이 학교와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본 사업은 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의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 8개국의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COVID-19가 인류의 기반을 무너뜨리도록 둘 수 없습니다. COVID-19가 우리의 지혜와 학생들의 지혜 또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 기관, 사람들과 협력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COVID-19를 막을 백신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전략을 짜기 위해 24시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도 이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 기술의 발전으로 COVID-19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사들이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원격 학습 환경에서 이 교육교류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_Nunuk SURYANI,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교원인사관리부 국장

Q2: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해주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교육 및 평가 방법을 경험하게 해주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게 해줍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보다 개선하고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 이후에도 후속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후속 활동들이 인도네시아 학교들과 한국 학교들의 협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협력의 형태는 문화적 활동, 연구, 그리고 학생 교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양국의 교사 및 학생들 대상으로 좌담회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이 사업 참여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것입니다.

Q3: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 상황을 다차원적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제적, 보건적 위기일 뿐 아니라, 교육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학습이 교실에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대면이든 원격 학습이든, 둘 다 든,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학습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웨비나, 워크숍 등의 온라인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 대유행 기간의 경험을 통해 온라인 방식이 교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Guru Belajar"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게 모범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_Ahmad Rafee CHE KASSIM,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Q2: 교육교류사업은 말레이시아의 몇 가지 정책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13-2025 말레이시아 교육 청사진>에서 목표하고 있는 4번째 목표는 교직을 선호 직업으로 끌어 올리는 것인데, 본 교육부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이 잠재력을 탐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교수 전문성 개발 마스터플랜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원능력개발(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교사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시행된 <한국-말레이시아 교사교류사업(KOMTEP)>은 자격이 있는 교사들을 위한 대규모 지속적 CPD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해외 교류 학교 교사로서 훌륭한 활동을 수행하며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교사 표준의 네 가지 교원 능력 영역인 지적 탐구, 교수 능력,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개인 자질 발전에 집중합니다. 교사들은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우리 교육 공동체는 공유와 배움이라는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교류사업의 목표와 말레이시아의 정책 목표가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한 참가자 선발, 종합적인 사전 교육 및 훈련 사업, 사업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말레이시아의 경우, 능동적으로 사업 후속 활동을 추진한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 공동체 내외에서 혁신과 모범사례를 공유해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사업이 그들의 경력 발전 및 교원능력개발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디딤돌이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수많은 국제 활동, 혁신적인 지역사회 참여, 국제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주목할 만한 국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후속 활동들은 동료 교사들과 공유되는데, 이는 학생,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세계시민교육(GCED), 특수 교육, 학습공동체, 그리고 교류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확산되고 지속되도록 교사,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수상 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_Oyunbileg OIROV, 몽골 교육과학부 교육협력국 사무관

Q2: 2012년부터 시작된 교육교류사업의 몽골 참가자들은 교사의 교원능력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참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다른 국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과학부는 교육교류사업을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몽골 국민들 사이에서 교사 직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몽골 교육과학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학부는 참가자들이 학교 복귀 후 그들이 배운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동료들에게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3: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육교류사업이 모든 참가자에게 학문적, 사회적 이익이 있고, 몽골 교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국제 경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몽골 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 방법론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소통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단지 영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귀국 후에는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국 동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다양한 교수 방법론과 접근법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한국 교사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멋진 기회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온라인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 6개 학교에 러시아연방 교사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COVID-19로 몽골 국경은 폐쇄된 상황이지만 러시아 교사들을 초청해 줌(zoom)이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을 이용해 교육교류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_Margarita Consolacion C. BALLESTEROS, 필리핀 교육부 교육협력국 과장

Q2: 필리핀에는 세계시민교육(GCED)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지식과 기술 전수를 보장하고 우선순위 개선 분야를 다루는 Re-entry Application Project(REAP)가 있습니다. 본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이 각자 제안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국에서 돌아올 때에 맞춰 <한국-필리핀 교사교류사업(KPTEP)>에 명시된 바를 기관, 지역, 그리고 학교 단위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국하는 교사들은 필리핀 교육협력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교육부 중앙부처 관계자들 앞에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합니다. 이 때 승인된 사업은 담당 부서 및 지역 사무소에서 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며 사업성과와 효과는 매년 4/4분기 개최하는 <세계시민을 위한 교사교류포럼>에서 공유됩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함께 국제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열어 대면 교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Q3: 교육교류사업은 글로벌 사회에서 교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교육의 미션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가 교사들과 동료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 달성에 기여하고, 교사,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글로벌 역량 및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계 보건 위기는 우리의 교육 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 중 교육-문화 교류사업의 취소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학교들에 사업의 재개 및 실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가자 개인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등록하도록 해 줍니다. 올해의 경우, 정상적인 오프라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지만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교육교류사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COVID-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부터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동문회와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를 "groundEd" 또는 "groundEDSeries"라고 부르고 있는데, 'ground'는 교육에 대한 열정에 뿌리를 두고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동문회인데,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사들을, 특히 여기 필리핀에 있는 동료 교사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COVID-19 대유행이 가져온 기술적 변화를 이용하여 교육 및 문화적 교류를 다시 시작합시다.

태국_Yupha IEMSANGUAN,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Q2: 2016년부터 참여한 교육교류사업에 60명 이상의 태국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첫 해의 교육교류사업 이후 더욱 많은 교사들이 이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 참가국 교사들 덕분에 이 사업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매년 선발 과정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PISA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고득점을 받는 한국에서 한국 교사들과 교류하며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한국 교사들이 핵심 과목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 이슈를 접목하는 방법을 배워, 태국에 돌아와 가르칠 때 그런 이슈들을 과학, 사회, 영어, 윤리 등의 담당 과목에 반영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수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태국 학생들은 훌륭한 국제 시민이 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떤 국제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계의 일원임을 느끼고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참가 교사들을 모니터링 하고자 글로벌 교육, 교육 및 학습, 그리고 이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후속 활동들을 하도록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사업 참가 교사들이 다른 태국 교사들에게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본 사업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COVID-19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태국 교사 모두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태국 교육부는 교육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산 및 시간 문제로 인해 태국 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태국과 한국 교사들이 서로 연결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배우고, 공부하고, 친분을 쌓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COVID-19 때문에 국경을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COVID-19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COVID-19로 인해 학교에 가거나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및 집이나 회사에 있는 IT 기기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자 매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지식, 명칭,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나 교육교류사업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은 팬더믹으로 발생한 어려움들을 ICT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은 친구, 사랑, 웃음, 열정, 공감, 기쁨의 눈물,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협력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교 단위의 협력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교류사업 외에 '학교와 학생' 교류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대유행 같은 장애물조차도 우리의 관계를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교류사업 중장기 전략 및 비전 공유

대한민국_안주란,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교육국제화담당관

2021년은 우리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교류국가와 교사의 수를 늘리며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학습법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국제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내고자 합니다. 먼저, 포스트 COVID-19에 대비한 비대면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온라인 사전연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참여교사들이 학교 배치 전에 받는 사전대면교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상대국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참가교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수자료를 제작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여 교사들의 수업·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초청 및 파견교사와 배치학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체계화된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각국 교육부와 협력기관의 도움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교육 분야 변화의 새 도전을 준비하여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1 교육교류사업 10주년 기대멘트

Kun RE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캄보디아의 가장 큰 기대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적 규범에 적응하면서 유연하고도 지속가능한 이 성장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육교류사업이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끈끈한 유대라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교사들에게 이 풍요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주년을 맞이한 교육교류사업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채롭고 멋진 미래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nuk SURYANI,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교원인사관리부 국장

교육교류사업은 이 자체로 아주 중요하며, 팬데믹 시대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라오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교육교류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용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라오스에서 이 사업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Ahmad Rafee CHE KASSIM,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말레이시아는 이 교육교류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로서는 국경을 초월한 교사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국가들 간의 문화 및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체계적인 화상(비대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규범과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Oyunbileg OIROV, 몽골 교육과학부 교육협력국 사무관

몽골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이 교육교류사업을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국의 참가자 수를 늘리고, 몽골 교사 및 교장들을 위한 현장 학습과 같은 더 많은 활동으로 교육교류사업을 풍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자리를 빌어서 9년째 교육교류사업에 몽골이 참여함으로써 몽골 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멋진 국제적 경험 제공과 주변 사업 참가국가들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몽골은 앞으로도 교육교류사업 참여를 통해 주변 사업 참가국가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COVID-19에 대한 걱정 없이 속히 직접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rgarita Consolacion C. BALLESTEROS, 필리핀 교육부 교육협력국 과장

필리핀은 교육교류사업이 참여하는 교사 인원뿐만 아니라 참여국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국가에서도 전 세계 교사들이 교육과 문화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교류하는지 서로 파악하고, 기참가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촉진자가 되어 잘 구축한 교사 네트워크를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Yupha IEMSANGUAN,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태국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내년 교육교류사업의 10주년을 정말 기대합니다. 꼭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패널 토론 영상



패널토론 시작 전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교육국제화담당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교원인사관리부 국장



필리핀 교육부 교육협력국 과장



몽골 교육과학부 교육협력국 사무관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패널 토론 종료

라이브 토크

• 라이브 토크 개요

- 일시 : 2020. 11. 24(화) 12:22 ~ 13:23 (61')

- 장소 : 마루아트센터

- 사회 : 배현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부팀장

- 라이브 토크 참가자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김호린	공근초등학교 *온라인으로 참석
2	박혜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김옥주	속초초등학교
4	사미경	울천고등학교
5	김혜란	신평초등학교
6	김선영	조치원대동초등학교
7	이준봉	청주중학교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12:22-12:23	오프닝	사회자
12:23-12:26	참가교사 소개	- 온라인 (김호린) - 오프라인 (박혜경, 김옥주, 사미경, 김혜란, 김선영, 이준봉)
12:26-12:27	질문1 저희가 사전에, 선생님들께, 선생님의 파견 생활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한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사회자
12:27-12:36	질문 답변	선생님 (7명)
12:36-12:37	질문2 처음에 파견을 결심하신 계기에 대해서 공유해주신다면, 어떤 분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자
12:37-12:41	질문 답변	선생님 (3명)

12:41-12:42	질문3 그래서 파견지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
12:42-12:47	질문 답변	선생님 (3명)
12:47-12:48	질문4 이런 수업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더라든지 아니면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현지 생활 중에 이런 걸 하길 잘했다든가 하는 것 이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께 자랑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자
12:48-12:52	질문 답변	선생님 (3명)
12:52-12:53	질문5 이런건 내가 좀 달라졌다, 주변에서 이런 점이 달라졌다고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회자
12:53-12:56	질문 답변	선생님 (2명)
12:56-12:57	질문6 돌아오시고 나서, 그 파견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다, 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사회자
12:57-13:02	질문 답변	선생님(4명)
13:02-13:03	질문7 지금 파견을 다녀오신지는 꽤 되었지만, 가장 처음에 학교 가서서의 첫날의 설렘과 마지막날에 학생들과 작별인사 할 때의 아쉬움은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아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날의 경험을 공유해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사회자
13:03-13:06	질문 답변	선생님(2명)
13:06-13:07	질문8 파견을 떠나는 전날이다, 내일 파견을 간다! 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그 때 준비하지 못했던 것 중에 준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사회자
13:07-13:09	질문 답변	선생님(2명)
13:09-13:10	질문9 사업 참가를 망설이고 계신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정리하기	사회자
13:10-13:15	질문 답변	선생님(4명)
13:15-13:16	질문10 영상편지 안내	
13:16-13:21	질문 답변	선생님(3명)
13:21-13:23	라이브 톡 마무리	사회자

라이브 특 내용 원문

사회자 배현주 부팀장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토크쇼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의 배현주 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스튜디오에 계신 얼굴들을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마이크를 넘겨서 선생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는 자리에 착석해주신 순서로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들의 성함과, 파견 연도 그리고 파견 국가를 간략하게 30초씩만 소개해주세요. 그럼 먼저 ZOOM으로 접속해서 저희 라이브 토크쇼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호린 선생님부터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가교사 자기소개

(김호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공근초등학교 김호린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 필리핀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박혜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접능력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레이시아 파견교사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김옥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속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옥주입니다. 저는 2016년도 베트남에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사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천고등학교의 사미경입니다.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신흥초등학교 교사 김혜란입니다. 2018년도 태국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대동초등학교 교사 김선영입니다. 2018년도에 캄보디아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이준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대자연의 나라 몽골로 파견을 다녀온 청주중학교 영어교사 이준봉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멘트

네,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테이블에 각자 파견 다녀오셨던 국가의 깃발이 놓여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파견 연도와 파견 국가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서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부담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으로 이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 동창회와 같은 기분을 선물하자, 라는 제안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선뜻 참가하겠다고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호린 선생님께서는 COVID-19 상황 때문에 학교 권고로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지는 못했는데, 온라인으로도 꼭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사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12~2019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 토크를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멀리서나마 응원해주시고 토크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첫번째 질문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오시기 전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미리 드렸는데요. "선생님의 파견 생활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고르시겠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준봉 선생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준봉 선생님

저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떠오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파견교사로 근무했던 볼롭스를 학교 학생들과 찍은 '즉석만남 사진'인데요. 이때는 수업참관 기간이어서 아이들과 인사만 한 번씩 나누고 아직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하룻길에 퇴근하는 저를 보고는 학생들이 제게 하나 둘 오더니 금세 저를 둘러싸고는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면서 웃더니 제게도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들었던 것은 "까르르"하고 웃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잠깐 당황하기는 했지만, 이 친구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웬지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아이들의 순수함과 감동은 제가 몽골에서 지낸 100일 남짓한 기간 내내 하루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김옥주 선생님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든데, 한 가지 뽑자면 학생이 그려온 태극기를 뽑아 볼게요. 첫 수업 때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태극기를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수업 때 아이가 수첩에다가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와 태극기를 같이 그려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인사가 "곤니찌와"였어요. 제가 일본인 선생님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파견이 마무리 될 때쯤 전교생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사하고 내려오니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는 중에 저에게 큰 목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안녕"이라고 해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석 달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속으로 막 좋아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박혜경 선생님

말레이시아 파견기간 동안 저의 특별한 일 때마다 같이 했던 분홍색 꼬까옷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처음 학교에 배치가 되고 학교에서 선물을 받은 치마인데,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너무 화려해서 내가 입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 주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입지 못했어요. 출근길부터 퇴근까지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파견생활에 대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막상 파견을 가서는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와서 하려다 보니 오히려 한국이 낯설게 된 것이 바로 이 꼬까옷이 압축적으로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미경 선생님

저는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이 색도 선도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한복 덕분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복을 가져갈 때 남녀 성인 한복 한 벌,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색동저고리와 치마를 가져갔어요. 한복 수업하려고 종이한복을 가져가 학생들이 색종이에 직접 디자인해 만들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과 비교해보기도 했어요. 호기심에 찬 학생들의 표정이 생생히 떠올라요. 이전엔 저야말로 한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복 덕분에 학생들이 저와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캄보디아 파견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물건을 꼽아보니, 저는 색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만난 Preah Norodom 초등학교 학생들은 색종이로 한복 접기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봤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학용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공수한 귀한 양면 색종이로 한복 접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집중하며 따라 접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혜란 선생님

'교실에서 찾은 희망' 학교폭력예방 UCC 영상이 제 파견 생활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제가 가르쳤던 태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영상에 함께 나온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현지에서 진행했던 체육 수업과 영어 수업 교육활동 내용이 담겨 있으며, 만든 영상을 월드비전에 출품하여 현지 학교에 상품으로 전교생을 위한 한국 과자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도 한국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 수업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제 파견생활을 잘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김호린 선생님(Zoom 접속)

제가 준비한 것도 영상입니다. 필리핀 파견 후 파견교사 별로 과제를 제출해야 했는데, 저는 필리핀 파견생활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세미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했어요.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영상만 보면 제 필리핀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사회자 두 번째 질문

네, 선생님들의 파견 생활과 관련된 아이템을 딱 한 가지씩만 봤는데도, 현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을지 눈에 선해지는데요.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파견 다녀오신 선생님께서도 파견 다녀오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처음에 파견을 결심하실 때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파견을 결심하신 계기에 대해 먼저 김옥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주 선생님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해외에서 근무해보는 것이 교사의 오랜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APCEIU에서 온 공문을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저희 반에 베트남 이주 가정 아이가 있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쯤은 어머니랑 꼭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국어가 서투시고, 저는 베트남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소통이 잘 안 될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견을 갔다 와서는 아이랑 "선생님도 외할머니 나라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 어땠었니?"등등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아이에게 엄마 나라에 대해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준봉 선생님

저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혈액형도 A형이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고 꽤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어디 가더라도 적응을 제법 잘 합니다. 그리고 짧게 가는 해외여행보다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도 좀 익혀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생활풍습도 좀 더 가까워서 엿볼 수 있는 삶을 동경해 오던 차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파견 전에 겨울이 꽤나 길고 춥다고 해서 살짝 염려는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미경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교사로서 꿈꿔왔던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로망이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었고, 그 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하고도 싶었어요. 관광이나 방문이 아니라, 그곳 학교에서 한 명의 학교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과 얼마나 다를까? 비슷한 점은 뭘까?', '선생님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교 문화나 교육제도는 어떨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2003년부터 국제이해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했고, 다문화·인권교육을 했지만 실제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해본 적이 없어요. 다문화 학생들 수는 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교육활동 경험이 없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세 번째 질문

저는 연수 때 파견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정착 현지에 가서 보면, 너무나 현지 사람처럼 잘 어울려 지내시는 모습에 놀란 경험이 많은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파견교사'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파견국가의 생활 모습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파견지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혜란 선생님께서는 현지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김혜란 선생님

출근 후 매일 아침 조회를 하였고, 조회가 끝난 후 바로 수업 시간이 아니면 학교 앞 노점상에서 아침밥을 사 먹었습니다. 매일 저희를 챙겨주시는 태국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태국의 간식거리를 사다 주셔서 아침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교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영어 시간에 배운 게임으로 영어 말하기 기차놀이를 하거나 체육시간에 알려준 딱지치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면, 태국 공원에서 하는 무료 운동 수업에 참여하여 태국 아주머니들과 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어에 욕심이 생겨 개인적으로 태국어 과외를 구해서 숙소 근처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자기 전에 새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을 구상하고 잠드는 게 파견 국가에서의 제 하루였습니다. 행정업무에 치이지 않고, 아이들과 수업만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교사로서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김호린 선생님(Zoom 접속)

임지 발령 후 2주 동안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측에서 생활공간 등 꼼꼼히 준비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은행은 어디에 있고 세탁소는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 와서 한동안은 제가 교문에 서서 아이들과 아침인사를 나눴었어요. 덕분에 아이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시가 넘으면 매일 같이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건 필리핀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회시간에 천주교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 조회 시간이 지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수업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면,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마을 이곳저곳 탐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필리핀 생활의 오아시스와 같은 멋진 카페를 발견했는데, 그 카페를 알게 된 이후로는 매일 같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수업 준비도 하고, 책도 읽고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혜경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견된 학교는 출근시간이 무척 빨랐어요. 1교시 시작이 7시 30분부터였고, 선생님들의 출근은 7시 20분까지였어요. 저야 다행히도 숙소가 학교에서 5분 걸리는 기숙사였던지라 멀지 않아서 꼭두새벽부터 일어날 필요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기숙사 아이들이 기숙사 식당에서 받은 파견교사용 아침식사를 새벽 6시 정도에 전달해줬거든요. 식빵과 잼, 음료수, 간혹 가다 샐러드로 이루어진 식사였는데, 이때 받은 식빵이 남아서 오후에 아이들이 숙소에 놀러오면 함께 다른 간식을 만들어 먹거나 했어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 파견기간 동안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다 끝나고 방과 후에는 Form4 학생들, 우리나라로 치면 고1~고2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말이 '한국어'수업이지, 사실 '한글'수업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게 하자는 거였는데, 명찰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익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가르쳐도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한국의 날' 이벤트 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름표를 직접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제가 한 수업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 네 번째 질문

네,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 학교에서의 일상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정 넘치는 수업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중에 '아, 내가 생각해도 현지에서 이런 걸 하길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업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다'하는 수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선영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선생님

캄보디아의 어린이날은 6월 1일로 매해 Preah Norodom 초등학교에서는 작게나마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었답니다. 제가 파견 간 2018년 6월 1일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라 생각해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아동용, 어른용 한복 입기 체험과 색종이로 한복 접기, 한글 따라 써보기 등 책상 하나를 마련해 한국문화 체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행사 순서에 제가 출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MR 반주에 맞춰 아리랑을 리코더로 연주하는데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려니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당시에 "상어 가족" 노래가 인기여서 통역인 다네(Dane)에게 상어 가족 한글 가사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복사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같이 불러보게 했는데 캄보디아 버전이 생소해서 그런지 잘 부르지 못해서 이것도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어린이날 행사였지만, 저와 함께 했던 어린이날이 Preah Norodom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주 선생님

저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크게 5가지 주제로 수업을 했었는데, 인사말 배우기,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한복 입어보기, 아리랑 노래 배워보기, 전래동화 소개하기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제가 시간과 공을 가장 많이 투자한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담임 선생님들께 수업 전에 찾아가서 명렬표를 받아다가 한글로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고, 수업 시간에 이름표를 나누어 주면서 태극기 스티커를 붙여서 꾸민 다음에 아이들이 가방에 걸 수 있도록 코팅해서 열쇠고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한복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복을 자기 나름대로 꾸며보고, 직접 입어보는 활동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한복이 4벌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입어보지 못해 아쉬워하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복을 30벌 정도 챙겨가서 한 반의 아이들이 모두 다 입어볼 수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김혜란 선생님

호응이 있었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체육 시간에 한 뉴스포츠 활동이었는데 피구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플라잉 디스크, 짐 볼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피구 규칙을 익히게 수업을 하였더니 참 즐거워하였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제가 그 당시 교육마술을 조금 배웠던 터라 교육마술 도구를 챙겨가서 동기유발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매직북으로 복습노트를 만들어 아무것도 없던 책에 아이들이 배운 표현이 영어로 나오거나 페어링 되어 한국어가 나오게 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 스티커 게임이나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한 달 동안 태국어 회화 기초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갔던 일입니다. 태국 아이들과 선생님이 생각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과 수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UCC를 만든 활동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도 당연히 좋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을 추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

한 학기라는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낯선 환경에서 살아보고 가르쳐보고 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런 건 내가 좀 달라졌다, 주변에서 이런 점이 달라졌다고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미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미경 선생님

제가 파견 다녀온 후에 동료들과 학생들이 저보고 더 너그러워지고 밝아지고 젊어졌다고 했어요. 지금은 급 노화했지만, 그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를 30대 중반으로 봤어요. 사실 관리를 받은 것도 청춘의 샘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젊어졌어요. 파견 생활이 청춘의 샘물이었나 봐요. 복귀 직후, 학생들은 제가 정말 '인도네시아 선생님'인 줄 알더라고요.

파견 이전엔 '다양성'에 집중했다면, 복귀 이후 '공통성'을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생활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기본 모습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만,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제도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워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문화다'는 말을 몸으로 경험했기에 더 너그러워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초등학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호린 선생님(Zoom 접속)

먼저 한국 학교로 파견오시는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겪어보니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파견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더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원어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이민자들. 이민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무의식중에 싹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요즘에는 세계시민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

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스스로 생각이 변화하신 것이 역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면서 깨닫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더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시고 나서, 그 파견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다, 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먼저 이준봉 선생님께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이준봉 선생님

제가 복귀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몽골에서 생활했던 일들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아직 좀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만이 아닌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견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 생각입니다.

박혜경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함께 파견 갔던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파견 수기를 엮어낸 것이예요. '똑똑, 도마뱀님, 저 들어갈게요.'라는 제목의 책인데,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책에 엮어낸 에피소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하더니 독서 감상문을 써왔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소개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2018년도 캄보디아 파견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2019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선생님들과 캄보디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참가자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파견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제 사례를 소개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능한 많은 팁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파견 오신 선생님들께는 한국의 학교생활과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해드렸습니다.

2019년도 6학년 영어 교담을 맡았을 때는 영어 시간에 캄보디아 의식주와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문화이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세계시민교육 Changers 보드게임'을 영어 수업시간에 활용해 국제 무역과 협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작은 실천으로도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캄보디아 파견 이후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린 선생님(Zoom 접속)

저는 2013년도에 파견을 다녀온 후 2015년도에 저희 강원지역 선생님들 몇몇 분들과 파견 학교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2018년도에 저희 반 아이들과 필리핀 학교를 직접 방문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마인드와 영어 학습이었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저희가 3일을 머물렀었거든요. 3일 동안 영어 학습이 많이 늘어났던 건 아니었지만, 같이 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협력교사를 통해 필리핀 현지 학교와 많은 교류를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일곱 번째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호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파견을 다녀오시고 나서 파견 선생님 소속 학교와 현지 학교가 자매결연을 통해 선생님들끼리 교류를 하시기도 하고, 양국 학생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셨던 선생님 한 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로, 또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로 퍼져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견을 다녀오신 지는 꽤 되었지만, 가장 처음에 학교 가서서의 첫날의 설렘과 마지막 날에 학생들과 작별인사 할 때의 아쉬움은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아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날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옥주 선생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김옥주 선생님

저는 파견 갔을 때 첫 날 입었던 옷과 마지막에 입었던 옷이 떠오르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파견 간 학교는 전교생이 약 이천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학교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내려다보는데,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단상에 올라갈 때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복을 예쁘게 입고 올라갔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던 날에는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첫날과 마지막 날 달라진 것은 옷이 아니라 저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첫날에는 한국에서 온 외국인 선생님이로서 베트남 아이들을 조금은 낯설게 만났지만, 나중에는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베트남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2월에 아이들과 헤어질 때 느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아쉬웠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김혜란 선생님

첫날에 기억이 나는 것은, 태국어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자기소개를 태국어로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성조가 맞는지 녹음해서 몇 번이고 들어보고, 태국어를 공부한 한국 선생님께 보내서 확인도 받으면서 준비했었는데요. 너무 떨려서 잠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은 너무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 주셔서 제가 빨리 적응하고 파견생활이 금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 헤어졌는데, 저 혼자서 며칠 동안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와는 다른 대상이었던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내 사람', '우리'가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여덟 번째 질문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쌓인 관계와 추억들로 인해 전혀 서로 모르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눈물로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담당자들도 뭉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파견을 떠나는 전날이다, 내일 파견을 간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때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박혜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선생님

내일 파견을 앞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연코, "부럽다!" 일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파견교사로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준다'라는 마음보다는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파견 당시에는 국민처럼 느껴지고, 저 스스로가 '애국심'이 가득해서 무언가 자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배워야 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남아 있어서 "배워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준비를 미리 해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던 점은 K-pop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K-pop을 잘 모르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가니까 아이들이 K-pop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K-teacher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실망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좀 더 현지 교사들과도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K-pop은 파견교사의 기본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미경 선생님

파견가기 직전까지 업무로 바빴는데, 저에게 딱 한 마디 해준 게 있어요. "사귀고 또 사귀자. 평범하고 다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친구가 되자."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인도네시아 선생님 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인도네시아 숙부, 숙모, 사촌 여동생 같은 분들과 조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꿈꿨던 교무실에서 저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중에서 사진 왼쪽의 마리아 선생님은 2018년도에 초청교사로 오셔서 재회를 하게 되니 눈물 나게 반가웠습니다. 파견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인도네시아의 살아 숨 쉬는 한 부분이죠. 인도네시아어를 더 많이 배웠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깊게 교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여니까 인도네시아 옷가게 사장님과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분 한국어 몰랐구요, 저도 인도네시아어 조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도 엄마, 저도 엄마, 그분도 아줌마, 저도 아줌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로 멋진 경험이었어요.

사회자 아홉 번째 질문

이제 라이브 토크쇼,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물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파견이나 초청에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파견을 망설이고 계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사전에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업 참가를 망설이고 계신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정리하기'인데,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미리 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선영 선생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선생님-이준봉 선생님-김옥주 선생님-박혜경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 이유는 없어: 펑수 성대모사인데, "이유는 없어, 그냥 해." 선생님, 파견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도 전하세요. 파견은 선생님 교직 생활에 가장 멋진 선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봉 선생님) 나의재발견: 한국에서는 경력이나 근무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다른 나라에 가서 현지학교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만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재발견' 혹은 '본모습'을 다시금 마주하러 떠나 보시는건 어떨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옥주 선생님) 훌훌 털어요: 낯선 곳에서 내가 석 달 동안 교사로 지내는 것이 저는 좋기도 했지만, 솔직히 겁도 좀 났었거든요. 날씨가 무척 덥고, 음식은 맞을지, 아니면 언어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훌 털어요'입니다. 걱정은 훌훌 털어 버리시고, 파견지에서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한 짜릿함같은 것들로 근심이나 걱정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혜경 선생님) 와 이걸 망설 / 사치입니다 / 지원하십쇼: 저는 다섯 글자로 한 번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까봐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와, 이걸 망설. 사치입니다. 지원하십쇼!"

영상편지

이 정도면, 지금 파견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송출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파견 가셨던 현지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봉 선생님께서 하시고 다음 선생님들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봉 선생님-사미경 선생님-김옥주 선생님

(이준봉 선생님) "샌-배노- 오윤치치박사, my No. 1 co-teacher, are you watching this? I hope you are watching this. 샌 배차노-미니 해르태 볼롭스를 소락친, 북데레 샌 소찌 배쓰노." 제가 몽골을 떠나 온지도 벌써 1년하고도 몇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볼롭스를 학교를 찾았던 그 날부터 마지막 떠나오는 그날까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제게 아낌없는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쉬 이흐 바이를라." 몽골은 벌써 한겨울로 접어들었을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작년에 제가 귀국하는 바람에 졸업식을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혹 기회가 되면 페이스북으로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볼롭스를 떠나오면서 여러분께 했던 마지막 인사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Good-bye"라고 하지 않고, "See you, later"로 헤어짐을 전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 꼭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를라. 해르태 슈-"

(사미경 선생님) 나의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라주아리 중학교 선생님이로 함께 해줘서 뜻깊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교류했듯이 내년에도 COVID-19 걱정 없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뜨리마까시(Terima Kashi)!"

(김옥주 선생님) 안녕, 애들아. "짜오 깡엠(Chao Cac Em)!" 선생님이 갔을 때는 여러분이 1학년, 2학년이었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나서 아마 중학생이 되어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왔던 "꼬 깡(co Kim)"기억나니?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리울 때마다 항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며 지난날을 추억해. 지금 바로 하노이에 갈 수 없지만,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 베트남 국기나 음식점을 보거나, TV에서 베트남 이야기만 들어도 귀가 쫑긋 서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밝은 앞날은 선생님이 멀리서 응원하니까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헨 갭 라이(Hen Gap Lai)!"

마지막 사회자 멘트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9년 동안 교육교류사업의 참가자로서 낯선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신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글로벌 교사로 빛나실 선생님들에게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업명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인데, 사업명 일부로 5행시 지으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다문화가성" 이 다섯 글자로 지은 5행시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라이브 토크를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김선영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오행시

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가도 변함없이

문: 문을 열고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화: 화려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고 아름답게

가: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과 따뜻한

정: 정을 나누었던 파견 활동,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사회자 멘트

네, 지금까지 라이브 토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전시관

•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 전시 구성 : 2020 SSAEM 영상·사진·편지 공모전 수상작 전시

- 전시 방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참가작 선정 후 자료 게재

- 전시 목록

최우수상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Barredo Kristine Joan Del Agua	필리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2019
2	Kem Malys Krang 외 3인	캄보디아	순천효천고등학교	
3	Villacorte Jejomar Gamalo	필리핀	북등중학교	
4	Diana Alui Daniel	말레이시아	대동중학교	
5	Zulueta Ma. Eirish Santos	필리핀	백록초등학교	2017

우수상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Alambra Shirley Edio	필리핀	가남초등학교	2016
2	Bustos Princess Catherine	필리핀	병곡초등학교	2019
3	Lusiana Dian Retnowati	인도네시아	인향고등학교	2019
4	Magdalena Batubara	인도네시아	양성초등학교	2014
5	Norsheila Binti Julmohamad	말레이시아	가림고등학교	2019
6	Osorio Danilo Gervacio	필리핀	남원노암초등학교	2015
7	Ranti Mustika Karniyati	인도네시아	봉일천고등학교	2014
8	Sadinas Noel Villa. Nueva	필리핀	서창초등학교	2019
9	Suciati Poro	인도네시아	동주초등학교	2019
10	Syamsul Azhan Bin M Raymi	말레이시아	인천양촌중학교	2016
11	유경수	필리핀	N. Yabut Elementary School	2015

장려상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Demberel Urantogos 외 2인	몽골	아름초등학교	2019
2	Do Thi Ngan	베트남	대전화정초등학교	2016
3	Fitra Murni Agus Ramayulis	인도네시아	서울공업고등학교	2019
4	Guba Julyn Aquino	필리핀	대구비봉초등학교	2015
5	Hadi Sukoco Sumarya	인도네시아	조치원여자중학교	2018
6	Ibabao Chandler Bumatay	필리핀	대전전민초등학교	2019
7	Ike Fitri Wardani	인도네시아	월평초등학교	2019
8	Kamonrat Chimphali	태국	용인강남학교	2019
9	Khairunnisaa Binti Mohamad	말레이시아	인천양촌중학교	2019
10	Kunna Patcharin	태국	금장초등학교	2019
11	Michelle Lim Chia Wun	말레이시아	오전초등학교	2018
12	Reyes Jenepil Balo	필리핀	분포고등학교	2019
13	Rochmani Dwiastuty	인도네시아	옥현초등학교	2014
14	Rosdiana Rawung Arnold	인도네시아	인천대건고등학교	2018
15	Sankhamnark Wiwat	태국	서울공업고등학교	2016
16	Santos Melandro De Los Reyes	필리핀	정읍수성초등학교	2016
17	Sari Ayu Mahgdalena Purba	인도네시아	동주초등학교	2019
18	Sry Mulya Kurniati	인도네시아	서울공업고등학교	2019
19	Vinny Sutriani Raranta	인도네시아	인천대건고등학교	2018
20	Yunis Eka Putra	인도네시아	부천부흥중학교	2019
21	권혜원	인도네시아	SMA Plus Negeri 17 Palembang	2019
22	신혜선	말레이시아	SK(P) Methodist 1 Brickfields	2016
23	오광래	필리핀	Meycauayan National High School	2013
24	유형림	필리핀	Oranbo Elementary School	2019
25	이동탁	베트남	Bui Thi Xuan High School	2019
26	이정훈 외 1인	인도네시아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2019
27	이지원	베트남	Nguyễn Bình Khiêm Primary School	2015
28	허수연	태국	Khlong Krathum Rat Uthit School	2019
29	홍호선	베트남	Nguyễn Bình Khiêm Primary School	2017

참가작 (편지)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Donrov Oyumaa	몽골	만석초등학교	2019
2	Dulay Mary Ann Grace Bragasin	필리핀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2019
3	Mohd Azmanuddin Bin Azman	말레이시아	사화초등학교	2019
4	Namjildorj Khongorzul	몽골	남양초등학교	2018
5	Nong Thi Bich	베트남	임고초등학교	2019
6	Reni Nilawati Dewi	인도네시아	탄현중학교	2016
7	Sulistyawati	인도네시아	울천고등학교	2018
8	최홍길	베트남	Nguyễn Du Secondary School	2016



🔍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확인서 발급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ENG 📺 📱 📷

행사 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행사 소식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영상

사진

편지

2020 Online SSAEM 컨퍼런스 대표영상

*Guba Julyn Aquino
2015, Philippines*

I was able to see cultural perspectives with a clearer vision
저는 더 명확한 시각의 문화적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대표영상

최우수상

Barredo Kristine Joan Del ...
Tunasan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광주교대부설초등...
파견/초청연도 2019

Kem Malyskrang 외 3인
Vathanak Chhung Leap High S...

파견/초청국가 캄보디아
파견/초청학교 순천효천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Villacorte Jemomar Gamalo
Lorenzo Daa Memorial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북동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공모전 영상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Lusiana Dian Retnowati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패션/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패션/초청학교] 인항고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9



Magdalena Batubara
SD Strada Wiyatasana Jakarta
 [패션/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패션/초청학교] 양성초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4



Osorio Danilo Gervacio
Kasarinlan Elementary School
 [패션/초청국가] 필리핀
 [패션/초청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5



Ranti Mustika Karniyati
SMAN 2 Cibinong
 [패션/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패션/초청학교] 봉일천고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4



Sadinan Noel Villa
Kongkong Elementary School
 [패션/초청국가] 필리핀
 [패션/초청학교] 서창초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9



Suciati Poro
SDN Percobaan Padang
 [패션/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패션/초청학교] 동주초등학교
 [패션/초청연도] 2019



Syamsul Azhan Bin M Raymi
Kolej Vokasional Kuala Selangor
 [패션/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패션/초청학교] 인천양촌중학교
 [패션/초청연도] 2016



유경수
호암초등학교
 [패션/초청국가] 필리핀
 [패션/초청학교] N. Yabut Elemen...
 [패션/초청연도] 2015

공모전 영상 부문
우수상

장려상



Do Thi Ngan
Thang Long Second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대전화정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6



Fitra Murni Agus Ramayulis
SMAN 3 Padang Panja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Guba Julyn Aquino
Longos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대구비봉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5



Hadi Sukoco Sumarya
Al-Hamidiyah School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조치원여자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Ibabao Chandler Bumtaty
Alem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대전전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Ike Fitri Wardani
SMAN 1 Timpeh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월평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Kamonrat Chimphali
Thanonhak Pittayakhom School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용인강남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Khairunnisaa Binti Moham...
SMK Guntong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인천양촌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Michelle Lim Chia Wun
Chung Hua Musi Chinese Prim...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오전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공모전 영상 부문
장려상



Rosdiana Rawung Arnold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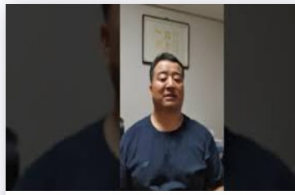
Sankhamnark Wiwat
Sappha Witthayakhom School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6



Sari Ayu Mahgdalena Purba
SD Swasta Batari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동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Vinny Sutriani Raranta
Citra Kasih Senior High School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오광래
함양중학교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Meycauyan Nat...
 파견/초청연도 2013



유형림
진영대창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Oranbo Element...
 파견/초청연도 2019



이동탁
진영대창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Bui Thi Xuan Hig...
 파견/초청연도 2019



이정훈 외 1인
김해금산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SMP Xaverius M...
 파견/초청연도 2019



이지원
어룡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Nguyễn Binh Khi...
 파견/초청연도 2015



홍호선
새서귀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Nguyễn Binh Khi...
 파견/초청연도 2017

공모전 영상 부문
장려상

최우수상



Kem Malys Krang 외 3인
Vathanak Chhung Leap High S...
 파견/초청국가 캄보디아
 파견/초청학교 순천효천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Villacorte Jejomar Gamalo
Lorenzo Daa Memorial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북동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우수상



Lusiana Dian Retnowati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인항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Magdalena Batubara
SD Strada Wiyatasana Jakarta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양성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4



Osorio Danilo Gervacio
Kasarinlan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5



Ranti Mustika Karniyati
SMAN 2 Cibino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봉일천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4



Sadinas Noel Villa. Nueva
Kongkong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서창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Suciati Poro
SDN Percobaan Pada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동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유경수
호암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N. Yabut Elemen...
 파견/초청연도 2015


공모전 사진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Demberel Urantogos 외 2인
New Development Secondary ...

파견/초청국가 몽골
파견/초청학교 아람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Do Thi Ngan
Thang Long Second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대전화정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6




Guba Julyn Aquino
Longos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대구비봉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5




Hadi Sukoco Sumarya
Al-Hamidiyah School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조치원여자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Ibabao Chandler Bumtay
Alem Elementary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대전전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Kamonrat Chimphali
Thanonhak Pittayakhom School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용인강남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Michelle Lim Chia Wun
Chung Hua Musi Chinese Prim...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오전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Sari Ayu Mahgdalena Purba
SD Swasta Batari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동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Sry Mulya Kurniati
SMKN 6 Palemba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신혜선
보라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SK(P) Methodist ...
파견/초청연도 2016



이동탁
진영대장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Bui Thi Xuan Hig...
파견/초청연도 2019



이지원
어룡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Nguyễn Binh Khi...
파견/초청연도 2015

공모전 사진 부문
장려상

최우수상



From
Diana Alui Daniel
SMK Taman Perumahan Bedaun
파견/조정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조정학교 대동중학교
파견/조정연도 2019

To
교장 (권영대), 협력교사 (박종...



From
Kem Malys Krang 외 3인
Vathanak Chhung Leap High S...
파견/조정국가 캄보디아
파견/조정학교 순천효친고등학교, ...
파견/조정연도 2019

To
협력교사 및 학생들



From
Zulueta Ma, Eirish Santos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
파견/조정국가 필리핀
파견/조정학교 백록초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7

To
교장 (오수선) 및 동료교사들

우수상



From
Alambra Shirley Edio
West Fairview Elementary Sch...
파견/조정국가 필리핀
파견/조정학교 가남초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6

To
협력교사 (장아름), 학생 (혜진)



From
Bustos Princess Catherine
Muñoz National High School
파견/조정국가 필리핀
파견/조정학교 병곡초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9

To
협력교사 (최정미)



From
Magdalena Batubara
SD Strada Wyatasana Jakarta
파견/조정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조정학교 양성초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4

To
협력교사 (이어진) 및 학생들



From
Norsheila Binti Julmohamad
SMK Balung
파견/조정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조정학교 가림고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9

To
협력교사 (민새얼), 동료교사 ...



From
Ranti Mustika Karniyati
SMAN 2 Cibinong
파견/조정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조정학교 봉일천고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4

To
협력교사 (장호남)



From
Sadinas Noel Villa. Nueva
Kongkong Elementary School
파견/조정국가 필리핀
파견/조정학교 서창초등학교
파견/조정연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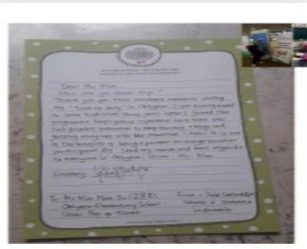
To
협력교사 (이철혁, 김구민)



From
Syamsul Azhan Bin M Raymi
Kolej Vokasional Kuala Selangor
파견/조정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조정학교 인천양촌중학교
파견/조정연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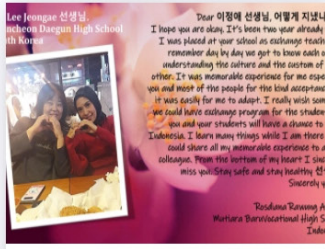
To
교장 및 협력교사 (Luna & Gr...

공모전 편지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From
 Rochmani Dwiastuty
 SMAN 6 Jakarta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옥현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4

To
 협력교사(김문주)



From
 Rosdiana Rawung Arnold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To
 협력교사(이정애) 및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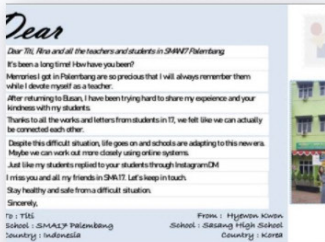
From
 Santos Melandro De Los Rios
 Tondo High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정읍수성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6

To
 교감(이경옥), 협력교사(신희...)



From
 Yunis Eka Putra
 SMAN 12 Sijunju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부천부흥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To
 협력교사(서영희)



From
 권혜원
 사상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SMA Plus Negeri ...
 파견/초청연도 2019

To
 동료교사(Titi, Rina) 및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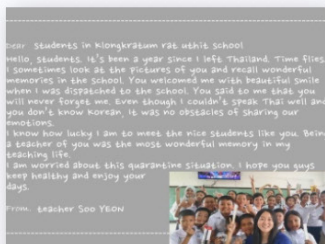
From
 신혜선
 보라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SK(P) Methodist ...
 파견/초청연도 2016

To
 협력/동료교사



From
 오광래
 함양중학교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Meycauyan Nat ...
 파견/초청연도 2013

To
 협력/동료교사 및 학생들



From
 허수연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Khlong Krathum ...
 파견/초청연도 2019

To
 학생들

공모전 편지 부문
 장려상

참가작

Dear my Manseok students
I am Oyumaa from Mongolia. I missed all days with you. I talked a lot about you and showed them your pictures and letters to my students so they knew you well. Even after a year, I still remember you very much. I thought I would travel to your country with my daughter to meet you this summer but there is quarantine. I occasionally read your letters. I hope to see you one day. If you travel in Mongolia, come to us. Stay healthy. Goodbye!
Mongolian teacher Oyumaa

From: Oyumaa
School: Manseok
Country: Mongolia

From
Donrov Oyumaa
Secondary school #12

파견/초청국가 몽골
파견/초청학교 안석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To
협력/동료교사 및 학생들

Dear students,
I am Dulay Mary Ann Grace Bra...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Dulay Mary Ann Grace Bra...
School: Manaog National High School
Country: Philippines

From
Dulay Mary Ann Grace Bra...
Manaog National High School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
파견/초청연도 2019

To
교장(유기욱)

DEAR SAHWA
ELEMENTARY

Dear Sahwa students,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Mohd Azmanuddin Bin Az...
School: Sk Putrajaya Presint 14(1)
Country: Malaysia

From
Mohd Azmanuddin Bin Az...
Sk Putrajaya Presint 14(1)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사화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To
협력교사(송지민) 외 동료교사...

Dear students,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Namjildorj Khongorzul
School: Naran Soum School
Country: Mongolia

From
Namjildorj Khongorzul
Naran Soum School

파견/초청국가 몽골
파견/초청학교 남양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To
협력/동료교사, 직원 및 학생들

Dear students,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Nong Thi Bich
School: Nguyen Hue High School
Country: Vietnam

From
Nong Thi Bich
Nguyen Hue High School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임고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To
협력교사(김지연)

Dear students,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Reni Nilawati Dewi
School: SMA Negeri 26 Bandung
Country: Indonesia

From
Reni Nilawati Dewi
SMA Negeri 26 Bandu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단현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6

To
교장, 협력/동료교사, 학생 및 ...

Dear Teacher So Miyoung, My best Mentor Teacher in Yulcheon High School, Seoul.
It's been a long time. How have you been? I hope you are always healthy and happy.
These three months that I spent in Yulcheon High School, it's really a wonderful journey for me to learn educational system and live together as a big family here. After returning to my hometown in Semarang, Central Java, Indonesia, I have been trying hard to adapt what I learned throughout the Programme to my school.
My colleagues here in Semarang Indonesia also found that my experience in Korea was very interesting and they also adapt what I shared to them about our school.
Let's take our colleagues and our students have cultural diversity together.
May God Bless Us, and safe us from a difficult situation. I miss you all in Yulcheon. Sincerely yours,

From: Sulistyawati
School: SMK Negeri 2 Semarang
Country: Indonesia

From
Sulistyawati
SMK Negeri 2 Semarang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율천고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To
협력교사(사미경) 및 학생들

Dear students,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miss you very much. I hope you are all well and happy.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lot and wondering how you are getting on. I hope you are all doing well in school and enjoying your studies.

From: 최홍길
School: 선정고등학교
Country: Vietnam

From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Nguyễn Du Seco...
파견/초청연도 2016

To
학생

공모전 편지 부문
참가작

• 교육활동 전시관

- 전시 구성 : 파견·초청교사 우수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 전시 방법 : '12~'19 SSAEM 컨퍼런스 영상·포스터·보고서 우수전시작 게재

- 전시 목록

영상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Baatauren Dulamsuren	몽골	보림초등학교	2018
	한국-몽골 교육교류 프로젝트			
2	Nanthaporn Keawharn	태국	인천해원중학교	2019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가요 (SDGs)			
3	Santo Mugi Prayitno	인도네시아	옥천초등학교	2018
	인형극과 와양 킬트를 이용한 협동심 기르기			
4	강다현	캄보디아	Hun Sen Bun Rany Wat Phnmom	2019
	꿈을 향한 두드림[Do Dream]			
5	김나연	말레이시아	SK Taman Bukit Maluri Kepong	2016
	Maluri, 한국에 취하다			
6	신혜원	필리핀	Mandaluyong HS	2016
	당신과 나누고 싶은 언어			
7	윤현순	베트남	Cầu Giấy High school	2017
	진로수업 좋아요^^			
8	이유경	태국	Hat Amara Aksornluk Witthaya	2019
	태국의 고등학교 생활			
9	정찬용	인도네시아	SMA Bina Insani Bogor	2016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의 만남과 하모니			
10	최석호	몽골	School #4	2018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포스터&보고서

번호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1	Bun Phallin	캄보디아	해원초등학교	2019
	아름다운 자연 지키기			
2	Hadi Sukoco Sumarya	인도네시아	조치원여자중학교	2018
	화학 반응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바틱 만들기			
3	Jeerasak Srijankaew	태국	홍천중학교	2017
	홍천중학교 환경 인식 변화 프로젝트 2017			
4	Josefino A. Mendoza II	필리핀	정읍수성초등학교	2016
	겉질을 깨고 변화하는 우리			
5	Nguyen Thi Hong Que	베트남	칠서초등학교	2019
	디지털 시대의 환경 지키미			
6	Phey Suk Ling	말레이시아	가림고등학교	2019
	미래의 도시			
7	마유미	필리핀	Ilaya Barangka Integrated School	2019
	극한 수업			
8	윤현순	베트남	Cầu Giấy High school	2017
	미래를 향한 나의 꿈과 진로			
9	이명자	태국	Wat Phiphit Prasat Sunthon	2019
	왓피핏 프라삿 순톤 학생들과의 주생활 관련 문화수업			
10	정수연	말레이시아	Bandar Uda 2 Primary School	2019
	교과 수업과 연계한 즐거운 다문화 교육			
11	정태호	몽골	School #18	2019
	골든벨 게임을 통한 재미있는 NIE			
12	최난주	베트남	Cầu Giấy Middle School	2017
	꺼우저이중학교의 가가거거			
13	최효진	캄보디아	Hun Neang East Beung Trabek	2019
	캄보디아 파견교사 안내서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확인서 발급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ENG

행사 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행사 소식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영상

포스터 & 보고서



한국-몽골 교육교류 프로젝트
Baatasuren Dulamsuren
Gun Galuutai School
파견/초청국가 몽골
파견/초청학교 보림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가...
Nanthaporn Keawharn
Khlongkrathum Rat-U-Thit Sc--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인천해원중학교
파견/초청연도 2019



인형극과 와양 킬트를 이용...
Santo Mugi Prayitno
Karanganyar School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육전초등학교
파견/초청연도 2018



꿈을 향한 두드림 [Do Drea--
강다현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캄보디아
파견/초청학교 Hun Sen Bun Ra--
파견/초청연도 2019



Maluri, 한국에 취하다
김나연
서울 계성초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학교 SK Taman Bukit --
파견/초청연도 2016



당신과 나누고 싶은 언어
신혜원
수일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필리핀
파견/초청학교 Mandaluyong Hi--
파견/초청연도 2016



진로수업 좋아요^^
윤찬순
해남공립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베트남
파견/초청학교 Cau Giay High Sc--
파견/초청연도 2017



태국의 고등학교 생활
이유경
전주여자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태국
파견/초청학교 Hat Amara Aksor--
파견/초청연도 2019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의 만...
정찬용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청학교 SMA Bina Insani --
파견/초청연도 2016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최식호
안성왕진중학교
파견/초청국가 몽골
파견/초청학교 School #4
파견/초청연도 2018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사무국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9 15층 e-Mail: 2020ssaem@gmail.com




교육활동 전시관 영상부문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확인서 발급
📄 로그아웃
🌐 이미지
🌐 ENG
📱
📺
📺

행사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행사 소식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영상
포스터&보고서

아름다운 자연 지키기
Bun Phallin
Ov Lork High School
파견/초정국가 캄보디아
파견/초정학교 해원초등학교
파견/초정연도 2019

화학 반응을 이용한 인도네...
Hadi Sukoco Sumarya
Al Zahra Indonesia Junior High ...
파견/초정국가 인도네시아
파견/초정학교 조지원여자중학교
파견/초정연도 2018

홍천중학교 환경 인식 변화 ...
Jeerasak Srijankaew
Thanyaburi School
파견/초정국가 태국
파견/초정학교 홍천중학교
파견/초정연도 2017

Metamorphosis
Suseong Elementary
comes Filipino Exchange Te...
Josephino A. Mendoza II
Rosauo Almario Elementary S...
파견/초정국가 필리핀
파견/초정학교 정음수성초등학교
파견/초정연도 2016

디지털 시대의 환경 지키미
Nguyen Thi Hong Que
Hoa Lu Junior High School
파견/초정국가 베트남
파견/초정학교 질서초등학교
파견/초정연도 2019

미래의 도시
Phey Suk Ling
SMK Seri Patiambun School
파견/초정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정학교 가림고등학교
파견/초정연도 2019

교과 수업과 연계한 즐거운 ...
정수연
서울광희초등학교
파견/초정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정학교 Bandar Uda 2 Pri...
파견/초정연도 2019

골든벨 게임을 통한 재미있...
정태호
원우고등학교
파견/초정국가 공글
파견/초정학교 School #18
파견/초정연도 2019

꺼우저이중학교의 가가거거
최난주
동대전중학교
파견/초정국가 베트남
파견/초정학교 Cau Giay High Sc...
파견/초정연도 2017

캄보디아 파견교사 안내서
최효진
대구동신초등학교
파견/초정국가 캄보디아
파견/초정학교 Hun Neang Beou...
파견/초정연도 2019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Copyright ©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사무국 |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9 15층 | e-Mail: 2020ssaem@gmail.com

교육활동 전시관 포스터&보고서


온라인 홍보관

•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 전시 구성 : 교육원 제작 영상 및 출판물 전시

- 전시 목록

번호	구분	제목
1	영상	캄보디아 교단에서의 120일 (소나기)(2019/파견 다큐멘터리)
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2017/초청 다큐멘터리)
3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2017/초청 홍보 영상)
4		몽골에서의 100일 (회상)(2016/파견 다큐멘터리)
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2016/파견 홍보 영상)
6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파견 활동 영상)
7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초청 활동 영상)
8		2020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 바다 거북 구하기(맛보기 강의/Khairunnisaa Binti Mohamad, 2019 Alumni)
9		2019 SSAEM 스케치
10		2018 SSAEM 하이라이트
11		2017 SSAEM 하이라이트
12	출판물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홍보 브로셔(2020)
13		[Letters from Korea Series 1] 무지개 나라 아이들
14		[Letters from Korea Series 2] 사랑을 담아, 한국으로부터
15		[Letters from Korea Series 3] 오색빛깔 한국
16		[Letters from Korea Series 4] 싸와디 한국
17		[Letters from Korea Series 5] 평화를 향한 여정



🔍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확인서 발급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ENG
📺
📺

행사 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행사 소식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영상


출판물

APCEU 바로가기


NEST 바로가기




캄보디아 교단에서의 120일 (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




몽골에서의 100일 (회상) (201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고...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고류(2...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고류(2...




2020 초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



2019 SSAEM Sketch



2018 SSAEM Highlight






2017 SSAEM Highlight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

2020 온라인 SSAEM 번역판스 사무국 |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9 15층 | e-Mail: 2020ssaem@gmail.com



🔍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확인서 발급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ENG
📺
📺

행사 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행사 소식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영상


출판물

APCEU 바로가기


NEST 바로가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Letters from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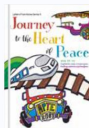
[Letters from Korea...



[Letters from Korea...



[Letters from Korea...





[Letters from Korea...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

2020 온라인 SSAEM 번역판스 사무국 |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9 15층 | e-Mail: 2020ssaem@gmail.com

• APCEIU 홍보관

-전시 구성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홍보영상 및 출판물 전시

-전시 목록

번호	구분	제목
1	영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 소개
2		보드게임 'Changers' (개정판) 룰 소개
3		APCEIU 20주년 기념 홍보 영상
4		글로벌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4차)
5		GCED 101: Introduction to GCED
6		GCED Online Campus
7		GCED Clearinghouse
8		Pre-Conference Webinar for the 5th IconGCED
9	출판물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한국판 해제본
10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고등학교 교사용)
11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교사용)
12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13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14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15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16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리다
17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Guide for Trainers
18		Activating Partnership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19		Telling Tales from Southeast Asia and Korea: Teacher's Guide
20		Photos from the 2006-2019 EIU Photo Class

The screenshot shows the SSAEM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for '행사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체험관', and '행사소식'. Below this, there are tabs for '이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교육활동 전시관', and '2020 SSAEM 공모전 전시관'.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영상' (Videos) and '출판물' (Publications). Under '영상', there are thumbnails for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 '보드게임 'Changers' (개정판)', 'APCEIU 20주년 기념 홍보 영상', '글로벌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GCED 101: Introduction to GC...', 'GCED Online Campus', 'GCED Clearinghouse', and 'Pre-Conference Webinar'. At the bottom, there is a footer with copyright information and logo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PCEIU.

This screenshot shows the '출판물' (Publications) section of the SSAEM website. It features a grid of book covers. The top row includes '세계시민교육 교수학',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 and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 The second row contains '세계시민교육, 선생님...', '세계시민교육, 선생님...',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and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The third row displays 'Global Citizenship E...', 'Activating Partners...', 'Telling Tales from S...', and 'Photos from the 20...'. The website header and footer are identical to the previous screenshot.

온라인 체험관

• 포토 방명록

- 진행 기간 : 2020. 11. 24(화) ~ 30(월)

- 참가 대상 : 2012 ~ 2019 사업 기참가자

외국 파견 한국교사, 한국교사 초청 외국 학교 관계자, 한국 초청 외국교사, 외국교사 초청 한국 학교 관계자

이름	파견/초청국가	파견/초청학교	참가 연도
김옥주	속초초등학교	베트남	2016
박혜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말레이시아	2014
박지혜	금강초등학교	캄보디아	2019
서정래	인천도화초등학교	베트남	2015
신혜선	보라초등학교	말레이시아	2016
김정현	강원명진학교	베트남	2018
유경수	호암초등학교	필리핀	2015
김창하	Satri Samut Prakan	태국	2016
Michelle Lim Chia Wun	2018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말레이시아	2018
Nur Fazilah Othman	2019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말레이시아	2019
Mohd Zaki Ghazali	2019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말레이시아	2019
Phey Suk Ling	2019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말레이시아	2019
Lee Mon Chool	Chung Ling High School, Malaysia	말레이시아	2019
Khairunnisaa Mohamad	SMK Guntong	말레이시아	2019
Sok Thida	2019 Korea-Cambod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캄보디아	2019
Dian Khairani	SMPN 57 Palembang	인도네시아	2017
Rosdiana Rawung Arnold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인도네시아	2018
Risharry Mohd Ramli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	2015
Hadi Sukoco Sumarya	Al Hamidiyah Junior High School	인도네시아	2018
Julyn Guba	Tañong Elementary School	필리핀	2015
Lusiana Dian Retnowati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인도네시아	2019
Shirley Alambra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6
Emilyn Sinlao	2013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3
Jan Darell Casuncad	Department of Educ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2019
Mary Ann Grace Dulay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9

Danilo Osorio	2015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5
Suciati Poro	SD Negeri Percobaan Padang	인도네시아	2019
Carmela Buhain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필리핀	2013
Ena Tamayo	Kalayaan National High School	필리핀	2012
Chandler Ibabao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9
Marco Meduranda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8
Noemi Baysa	Department of Education-Malabon National High School	필리핀	2019
Jejomar Villacorte	2019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9
Nur Hafiza Hasan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	2017
Ofelia Baguio	2015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5
Mary Joyce Alfon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5
Norsheila Julmohamad	SMK Balung	말레이시아	2019
Jean Laureta	Department of Education, SDO/Navotas	필리핀	2015
Wiwat Sankhamnark	Sapphawittayakhom School	태국	2016
Malyskrang Kem	Vathanak Chhung Leap High School	캄보디아	2019
Diana Alui Naiel	SMK Taman Perumahan Bedaun, WP Labuan	말레이시아	2019
Ruzviguima Perez	2016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6
Melandro Santos	Tondo High School	필리핀	2016
Kristine Joan Barredo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9
Syamsul Azhan M Raymi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	2016
Mohd Saifullah Mohd Jendeh	2018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말레이시아	2018
Jenepil Reyes	2019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9
Rosita Sihombing	SMA Negeri 1 Pangkalpinang	인도네시아	2016
Edmund Dacua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9
Cherry Lyn Balbacal	2019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9
Munkhtsetseg Byamba	2019 Korea-Mongol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몽골	2019
Maancelene Carag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2019
Norlizawaty Baharin	Sekolah Seri Puteri	말레이시아	2014
Jaida Malonzo	Department of Education-KPTEP Alumni Association	필리핀	2016
Sheryl Malubay	2012 Korea-the 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Alumni	필리핀	2012

• 포토 방명록

각 영상의 다시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확인서 발급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ENG
📷
📱
📺

행사 안내
개·폐회
발표·토론
전시관
포토 방명록
행사 소식

포토 방명록 참여 안내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들만을 위한 SSAEM 컨퍼런스의 온라인 네트워킹 ZONE!
 나의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함께했던 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반가운 얼굴이 있다면 손을 흔들어 인사하세요!

🔍

내가 쓴 글

글 작성하기

APTE Malaysia Alumn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Malaysia
👍 파견/초청연도 2019

Marco D. Meduranda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
Philippines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8

JEJOMAR G. VILLACO...
Department of Education - Phi...
Philippines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9

JEJOMAR G. VILLACO...
Department of Education - Phi...
PHILIPPINES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9

KOMTEP 2017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Malaysia
👍 파견/초청연도 2017

Julyn Guba
Taolong Elementary School, S...
Philippines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5

Nur Hafiza (Fizzy)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4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7

서정래
인천도화초등학교
한국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Vietnam
👍 파견/초청연도 2015

Ally Hyesun Shin
Bora Elementary School
Kore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Malaysia
👍 파견/초청연도 2016

SEO, JEONGRAE
INCHEON DOWHA ELEMENTA...
KORE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Vietnam
👍 파견/초청연도 2015

SEO, JEONG-RAE
INCHEON DOWHA ELEMENTA--
KORE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Vietnam
👍 파견/초청연도 2015

MICHELLE LIM CHIA ...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8

MICHELLE LIM CHIA ...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8

Lusiana Dian Retnowati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Indone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Indone...
👍 파견/초청연도 2019

PHEY S. LING
SMK SERI PATIAMBUN LIMBANG
MALAY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Malaysia
👍 파견/초청연도

PHEY S. LING
SMK SERI PATIAMBUN LIMBA...
MALAY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Malaysia
👍 파견/초청연도 2019

Munkhtsetseg
teacher
Mongol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9

Melandro D. Santos
Tondo High School
Philippines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9

Rosita Sihombing
Indonesia Education Ministry
Indone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Indone...
👍 파견/초청연도 2016

























Dian Khairani
SMPN 57 Palembang
Indonesia
2020-11-25

👍 파견/초청국가 Republi...
👍 파견/초청연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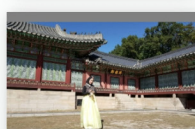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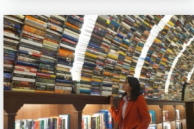



• 포토 방명록

 <p>Kristine Joan Barredo Tunasan Elementary School Philippines 2020-11-25</p> <p>파견/초청국가 the Phil... 파견/초청연도 2019</p>	 <p>김정현 강원영진학교 대한민국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Cambod... 파견/초청연도 2019</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am raymi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6</p>	 <p>Shirley E. Alambra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6</p>	 <p>LEE MON CHOOI SMJK CHUNG LING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P SMK SERI PATIAMBUN LIMB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Norlizawaty Baharin Sekolah Seri Puteri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p>	 <p>Hadi Sukoco Al Hamidiyah Junior High Scho... Indone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Indone... 파견/초청연도 2018</p>	 <p>Risharry Mohd Ramli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Risharry Mohd Ramli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JEJOMAR G. VILLACO... Department of Education - Phi...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Risharry Mohd Ramli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JEJOMAR G. VILLACO... Department of Education - Phi...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JEJOMAR G. VILLACO...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 포토 방명록

 <p>Okju Kim 속초초등학교 대한민국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Vietnam 파견/초청연도 2016</p>	 <p>박혜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민국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4</p>	 <p>DIANA ALUI DANIEL SMK TAMAN PERUMAHAN BE...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Camb... 파견/초청연도</p>	 <p>MOHD ZAKI Ts.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9</p>
 <p>Wiwat Sankhamrark - Thailand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6</p>	 <p>박지혜 금강초등학교 대한민국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Camb... 파견/초청연도 2019</p>	 <p>Nur Fazilah Binti Oth... MOE Malaysia Malay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p>	 <p>Ruzviguima G. Perez KPTEP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6</p>
 <p>Rosdiana Rawung Arn... Mutiar Baru VHS Indones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8</p>	 <p>Maancelene Carag KPTEP Philippines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Sok thida Cambodia exchange teacher 2... Cambodia 2020-11-26</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p>	 <p>MAANCELENE CARAG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Suciati Poro SD Negeri Percobaan Padang Indonesia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Suciati Poro SD Negeri Percobaan Padang Indonesia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Indone... 파견/초청연도 2019</p>	 <p>유경수 호암초등학교 한국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the Phil... 파견/초청연도 2015</p>	 <p>MOHD. SAIFULLAH BI... APTE ALUMNI MALAYSIA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Malaysia 파견/초청연도 2018</p>
 <p>NORSHEILA BINTI JUL... SMK BALUNG MALAYSIA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CHANGHA Kim - S.Korea 2020-11-27</p> <p>파견/초청국가 Thailand 파견/초청연도 2016</p>	 <p>Ena Tamayo Kalayaan National High School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2</p>	 <p>Kem Malyskrang Vathanak Chhung Leap, MoEY... Cambodia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Kem Malyskrang Vathanak Chhung Leap, MoEY... Cambodia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Camb... 파견/초청연도 2019</p>	 <p>Kem Malyskrang Vathanak Chhung Leap, MoEY... Cambodia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Camb... 파견/초청연도 2019</p>	 <p>Kem Malyskrang Vathanak Chhung Leap, MoEY... Cambodia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Kem Malyskrang Vathanak Chhung Leap, MoEY... Cambodia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Camb... 파견/초청연도</p>

• 포토 방명록

 <p>DANILO OSORIO Department of Education - Phil...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carmela buhain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3</p>	 <p>OFELIA M. BAGUIO KPTEP 2015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Emilyn R. Sinlao Education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3</p>
 <p>Noemi Baysa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Jan Darell C. Casuncad Korea-Philippines Teacher Exc... Philippines 2020-11-28</p> <p>파견/초청국가 the Phil... 파견/초청연도 -</p>	 <p>JENEPIL B. REYES TEACHER EXCHANGE BATCH ... PHILIPPINES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Chandler B. Ibabao KPTEP 2019 Philippines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SOK THIDA Cambodia exchange teacher South Korea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Cambo... 파견/초청연도</p>	 <p>Sok thida Cambodia exchange teacher -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Cambo... 파견/초청연도</p>	 <p>Jaida C. Malonzo Department of Education-KPT... The Philippines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6</p>	 <p>Mary Joyce Alfons Plaridel Elementary School-SD... Philippines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Jean C. Laureta DepEd SDO Navotas Philippines 2020-11-29</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5</p>	 <p>Cherry Lyn V Balbacal DepEd Panabo City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the Phil... 파견/초청연도 2019</p>	 <p>Mary Ann Grace Dulay Department of Education -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Cherry Lyn Balbacal Teacher Exchange DepEd Pan...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p>
 <p>KIM JEONG HYEON GANGWON MYEONGJIN SCHO... KOREA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Vietnam 파견/초청연도 2018</p>	 <p>SHERYL R. MALUBAY KOREA-PHILIPPINES TEACHER...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2</p>	 <p>Rosdiana Rawung Arn... Mutiara Baru VHS Indonesia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8</p>	 <p>Rosdiana Rawung Arn... Mutiara Baru VHS Indonesia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8</p>
 <p>Lusiana Dian Retnowati SMP Xaverius Maria Palembang Indonesia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EDMUND DACUA DepEd Philippines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EDMUND DACUA DepEd Philippines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p>EDMUND DACUA DepEd Philippines Philippines 2020-11-30</p> <p>파견/초청국가 Republi... 파견/초청연도 2019</p>

스탬프 투어

- **진행 기간** : 2020. 11. 24(화) ~ 29(일)
- **참가 대상** : 2012 ~ 2019 사업 기참가자
외국 파견 한국교사, 한국교사 초청 외국 학교 관계자
한국 초청 외국교사, 외국교사 초청 한국 학교 관계자
- **참여 방법** : - 사업 기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운영 및 미션 완료자 선착순 200명 경품 지급과 함께 참가확인서 발급
 - 미션 1 : 포토 방명록 글쓰기
 - 미션 2 : 발표영상 5편 이상 시청하기
 - 미션 3 : 활동발표영상 10개 좋아요 누르기
 - 미션 4 : 온라인 전시관 자료 10개 이상 좋아요 누르기
- **참여 경품** : 내국인 전자문화상품권, 외국인 라인(LINE) 앱 이모티콘/스티커 2종

SSAEM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행사 안내 | 개·폐회 | 발표·토론 | 전시관 | **제점관** | 행사 소식

포토 방명록 | **스탬프 미션**

온라인 스탬프 투어

스탬프 미션 참여 안내

참가 대상	2012~2019 사업 기참가자 외국 파견 한국교사, 한국교사 초청 외국 학교 관계자, 한국 초청 외국교사, 외국교사 초청 한국 학교 관계자
참여 기간	2020. 11. 24(화) ~ 11. 29(일) / 6일간
당첨자 발표	2020. 11. 30(월) 공지사항 게재 예정
당첨자 선정 방법	참가 대상에 부합하는 참가자 중 미션 완료자 대상 내·외국인 선착순 200명!

참가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 대상	스탬프 미션 참여 대상과 동일
발급 안내	경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스탬프 미션 완료 시 "2020 SSAEM 컨퍼런스" 참가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스탬프 미션 완료 후 '마이페이지 스탬프 미션 참여현황'에서 발급 신청
발급 기간	2020. 11. 24(화) ~ 11. 30(월) / 7일간

Stamp 1

내 사진과 함께
포토 방명록
남기기!

Stamp 2

발표영상
5편 이상
시청하기!

Stamp 3

활동발표영상
좋아요 10개
이상 누르기!

Stamp 4

온라인 전시관
게시물에 좋아요
10개 이상 누르기!

경품안내 전자문화상품권 5,000원 | 국내 라인LINE스티커/이모티콘 2종

이벤트 참여하기

이벤트 유의사항

- 이벤트는 한 ID당 1회 참여 가능하며, 여러 계정을 통해 중복 참여할 경우 경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 오류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경품 미수령, 발송 또는 경품 지급 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경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 내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 종료 후 참여완료 안내 및 경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며, 타 목적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및 경품내용은 당사 혹은 경품 제공업체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령하신 경품의 타인 양도 및 판매는 금지합니다.
- 경품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온라인 경품 게시지 삭제, 분실에 대해 당사는 혹은 경품 제공업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Copyright ©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사무국 |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9 15층 | e-Mail: 2020ssaem@gmail.com

교육부 | APCEIU

폐회식

- 일시 : 2020. 11. 26(목) 16:35 ~ 17:00 (25')

- 장소 : 김경미 아나운서

- 사회 : 영어 사회 (한국어 자막)

- 진행순서

시간	프로그램	비고
16:31-16:34	폐회사	원장님 폐회인사말
16:34-16:37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소개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자 언박싱 영상 공개
16:37-16:40	사전녹화 촬영 NG모음	사전녹화 진행 하면서 재미있었던 NG 장면 소개
16:40-16:44	2021 교육교류사업 10주년 기대멘트	사업 10주년 기대 멘트
16:46-16:54	파견초청 홍보영상	
16:54-16:57	SSAEM 오프닝영상	

폐회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제7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보고회,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년간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 경험과 사업 종료 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후속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에 참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 온라인 컨퍼런스의 이점을 활용하여 각 국가의 사업 참가 교사들이 각자 다른 연도와 지역의 경계 없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한 경험은, 다양한 참가자들 간 교육교류의 경계를 낮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각자 세계시민교육의 씨앗이 되어 교육 현장에서 펼쳐가고 있는 수많은 후속 활동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하나씩 모여,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대해 참가국가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 들려주신 비전을 실현하며, 아태지역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아태교육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온 의견과 제안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태교육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류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국 교육당국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올 한해 팬데믹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지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각 국가 교육부 및 협력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배치학교 관계자 여러분 및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행사 주요성과

개요

2020년 제7회를 맞이한 'SSAEM 컨퍼런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한 이야기로 공유함으로써 참가자 개인의 활동 및 경험을 사업의 목표와 국제교육교류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다양한 사업 참여 주체들과 공유하여 그 성과를 축적, 홍보하고 추후 사업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올해 SSAEM 컨퍼런스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교육적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교육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대면 교류가 중단되었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2021년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9년간의 기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자 개별 활동성과 공유

국제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한 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으로 파견된 한국교사와 한국 배치학교에서 교육교류 활동을 마친 초청교사의 활동 내용, 성과, 긍정적 영향 등을 다양한 참여주체와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업 참가 후에 각자의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활동을 하고 있는 기참가자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참가 경험 재조명을 통한 교육교류 기여 고찰

본 사업의 배경, 목표 및 성과의 관점에서 참가 교사의 개별 후속 활동을 재조명하고 활동의 의의를 국내 다문화교육 증진 및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 등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함으로써, 본 사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교육교류 기여를 고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 평가, 확산 및 축적

교육을 통한 상호문화 공유를 지향하는 교육교류사업이 대상국 국가별 교육지표 및 국제적 동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사례를 사업 추진 경험에 비추어 공유하고 기록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과를 국제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고, 확산하며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소통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공고화

대상국 교육부의 성과평가, 참가교사들의 교육적 고민과 성찰, 배치학교의 사업 추진전략, 시도교육청의 사업추진 지원방안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평가 및 제언을 통해 사업이해도가 한층 향상되었으며, 추진체계 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이 강화되어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협력시스템이 공고해졌다.

2020 Online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II. 활동발표

1일차	77
2일차	94
3일차	106

S2AEM
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1일차

•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순서	구분 (파견/초청)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파견	유형림	진영대창초등학교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생각'에서 '변화'로 나아가기
2	초청	Danilo Gervacio Osorio	Kasarinlan Elementary School	한국-필리핀 교육교류 사업을 행동으로 옮기다.
3	파견	손소담	부민초등학교	문화가 녹아 있는 수업으로 전개하는 후속 활동, 교육 현장을 서서히 변화시키다.
4	초청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Sekolah Kebangsaan Bebuloh	정글 선생님: 내륙 지역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5	초청	Sok Thida	Santhormok Primary School	교육교류사업 후 후속 활동을 통한 개인적 변화와 성장
6	초청	임현빈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소개 -학생 교류 프로그램-
7	초청	Rosdiana Rawung Arnold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의 창업교육 활동
8	파견	곽진영	대구영선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 변화 그리고 공감
9	파견	장병철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다시 가슴이 뻐뻐..!

1-1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생각'에서 '변화'로 나아가기

· 유형림

저는 대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형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11월말까지 필리핀에 있는 오란보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에는 제가 7년차 교사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2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삶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목표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교사가 된 이후로 해가 지날수록 아이들에게 점점 벽을 두게 되고 깊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파견 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주기를 바랐고, 다행히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 세 가지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시야가 넓어졌고요, 두 번째는 수업이 좀 더 풍부해졌고, 세 번째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견근무를 하면서 현지의 교장선생님과 마스터 티칭선생님들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필리핀과 한국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또 인권이나 난민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하고 방법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사가 그 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 또 학교, 우리나라 안에서 머물렀었다면, 그 사고의 경계들이 확장돼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이랑 같이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책을 읽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건(채식주의)을 지향하는 삶이나,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무해한 일상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수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의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파견을 떠나기 전에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는 게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새로 생긴 이런 삶의 가치관이 저에게 정말 좋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수업이 풍부해진 건데요.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수업의 메시지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업의 하나의 일례로 지난 1학기에 동물 복지에 대한 수업을 했었는데, 5학년 실과 교과서에 한바닥 분량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제시된 차시였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동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개나 고양이, 혹은 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중점을 동물들이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나,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학생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 몇몇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날로 정해보아야겠다'라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동물들이 조금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발표해서 이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한 차원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수업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수업을 디자인할 때, 아이들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큰 울타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 것인데요. 필리핀에서 근무하다보면, 아이들과 100% 언어로만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눈을 서로 오랫동안 보아야 하고, 또 서로 웃어주고, 언어를 넘어서는 사랑의 에너지를 막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교사로서 받았던 상처들이나 좀 무기력했던 것들이 스스로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한국 교실에서의 내 모습은 어땠었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게 좀 두려워서 제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고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2월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몇 개월 만에 보는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그대로인데,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현지 국가에서 받았던 그런 무한한 사랑들을 앞으로 만날 학생들에게 차례차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견프로그램을 하면서 겪었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졌고, 수업이 풍부해졌고,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게 된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같이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선생님과는 지금까지도 서로 좋은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문장(Thoughts become changes)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하루하루 생각하는 대로 변화를 만드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한국-필리핀 교육교류 사업을 행동으로 옮기다.

· Danilo Gervacio Osori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 기참가교사회(KPTPEAA)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 Danilo Osorio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교류사업 참여 경험 이후 어떠한 후속 활동을 실천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15년, 저는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제가 가르쳤던, 지금은 교사가 된 학생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한 아이의 손을 잡아 주고, 한 아이의 사고를 열어주고, 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Danilo 선생님, 제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을 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같은 평범한 교사에게 해 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위대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5년, 저는 이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파견될 행운을 얻은 스무 명의 교사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새로 얻게 될 기회와 곧 있을 멋진 만남들에 대한 기대로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필리핀의 학생들 모두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 사고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것이 그들의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사려 깊게 배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부 칼로오칸(Caloocan City) 시에 위치한 저희 학교의 45-50명 남짓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굶주림이나 빈곤을 이해하는 데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학생들의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저는 먼저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공감이나 존중과 같은 태도를 가르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교사는 지속가능성을 가르칩니다. 자원은 한정되었지만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는 글로벌 세상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향후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로벌 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필리핀 교육부의 활동목표와 궤를 같이 하여, 제가 관리하는 KPTPEAA의 170여명의 선생님들은 세계시민교육과 SDG를 중시하는 우리의 생각 및 우리가 배운 점과 신념을 되새기며 여러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학교와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무려 10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수된 후속 프로젝트들이 빈곤, 기후 변화, 양질의 교육, 문화적 차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시민을 키워내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사들의 후속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역량이나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학습과 교육의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적인 자원봉사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더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쳐 여러 사람들이 지역 사회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움직이고 사랑을 나눠주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사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교육 분야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KPTPEAA는 필리핀 교육부등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배움과 개발,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정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팬데믹 기간 중 교육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웨비나 학습 시리즈를 구상했습니다.

2020년 5월, 6가지 분야로 구성된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 학습 시리즈 제1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Update, Upskill, Upgrade: Gearing Up for the new landscape of Education>입니다.

최근에 나온 학습 시리즈 제2차의 제목은 <GroundEd: Learning to Know, to be, to do and learning to Live together>로,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교육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지금의 격차와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의 네 가지 구성요소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는 혁신적이고 희망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교류의 플랫폼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SDG의 달성과 세계시민의식의 향상을 지지합니다.

이 학습 시리즈에 필리핀 전역과 해외에 있는 수십 만 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친절한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PTiran Laban sa COVID-19(COVID-19에 대항하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 참가교사들)"은 COVID-19 초기 고군분투의 과정에서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기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iKonek: masks for-a-cause"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태블릿 기반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시민교육과도 일맥상통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가치, 바로 바야니한 (BAYANIHAN)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교실로 돌아갑시다. 영향을 끼치고, 지속가능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이들은 미래의 마더 테레사, 미래의 아인슈타인, 미래의 교통경찰, 미래의 선생님, 미래의 의료진, 혹은 언젠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교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3 문화가 녹아 있는 수업으로 전개하는 후속 활동, 교육 현장을 서서히 변화시키다. · 손소담

Selamat Pagi,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부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손소담입니다. 앞서 인사말에서 보셨듯, 저는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로 교육교류사업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파견 활동 후 실시한 후속활동 경험 및 파견국과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여러분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후속 활동은 학교 문화, 관리자 및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의 협조, 교육청 방침, 학교에 배정된 예산 유무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교육활동으로 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후속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고도 싶었지만, 여러 한계가 있어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중심으로 후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은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속 활동으로 전개한 수업입니다. 둘째, 상호 교류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 후에 우리나라 및 파견국의 학생과 교사, 저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가 녹아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견국에서 가져온 학습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교과서입니다. 나라별로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은 비슷합니다. 파견 때 수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교과서를 접했는데, 삽화나 대상에서 문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학습 내용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연구자료로도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귀국 때 말레이시아, 중국계 학교의 영어 교과서와 과학, 수학 교과서를 따로 구입하여 가져왔고, 한국 학교로 복귀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교과서 훑어보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저와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른 문화 요소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밖에서 공부하는 세계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했던 말레이시아 전설 및 이야기들을 국어 시간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주위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교과서를 살펴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실험 등을 수업에 적용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학생들의 산출물입니다. 현지 학생들과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는 블로그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교사가 준비한 시청각 자료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니 실제감과 흥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갤러리 활동으로 읽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발표해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 수업 장면도 제가 제시하니 "아, 이 부분은 저 친구가 만들었구나!", "저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질문하는 등 학생들 간의 래포(rapport)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주제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 학습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직하던 학교에서 영국문화원과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교류(Connecting Classrooms)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환경 보호(Save the Earth)'라는 공동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여 각 나라의 환경 문제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자나 라면의 재료로 사용되는 말레이시아 팜유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으며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내야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펜팔 활동 및 현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쓴 엽서, 영상 편지를 읽어보고 답장을 써보는 펜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제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은 실제적인 쓰기 활동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실생활에 써보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고민하면서 쓰는 진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교류 활동입니다. 교류 활동은 '문화 박스 교류' 및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 박스 교류는 편지와 사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한국 전통 미술 작품, 문화 아이템을 선정하여 파견 학교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발송 후에 파견국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소식을 전해 와서 따뜻한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더 지나, 말레이시아 파견국의 멘토 교사가 저와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교류는 진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HIP(High Immersive Programm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화상 교류를 진행하거나, 파견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후속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교과서나 수업 자료에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존중하며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의 파견 경험이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시각도 변화하였습니다. 수업에서 하는 작은 후속 활동에 주변 선생님들과 관리자, 학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점차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파견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학교 정책에도 반영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파견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활동한 기간은 3개월 남짓이었는데, 본 사업 참여로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 인적 인프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국제교류 추진의 대상으로 삼을 나라나 학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나 노력이 적게 소요되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활동 동안 현지 학교 교사, 학생들과 래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SNS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활동 이후에 닥친 COVID-19라는 상황, 그에 따른 학교의 대처나 교육적 의미,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도 의견을 나누고 교육현장을 서로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교사인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견기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의 삶을 경험한 것은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몸소 느끼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타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니 개인이 세계 속에서 작지만 큰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나라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교육부, 파견 학교 관계자,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민들레 흩날처럼, 각 파견교사들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리마 까시(Terima Kasih)!

1-4 정글 선생님: 내륙 지역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초청교사인 Mohd Saifullah입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기 전, 저는 말 그대로 정글 한가운데에 있는 한 시골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 곳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 열악한 생활환경이었지만 한동안 저는 꽤 편안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기와 물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도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폰도 거의 안 터집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루밤 머무는 것은 상상도 안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단순하고 평온한 시골의 삶에 꽤 만족했습니다.

처음 교육교류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7년이지만 2018년에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발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환경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배치학교 (대소초등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많이 긴장했었지만 적응하고 나니 행복하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 간의 비슷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무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까지도 달랐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제 수업이 길어지는 바람에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께 미안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특히 아이들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분의 휴식 시간 동안 학생들은 긴장을 풀고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방금 배운 것을 소화하고 다음 수업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고, 이후로 저의 수업 진행과 관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에게 준비 시간을 5분 정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교실에서 한국에서 배운 수업 관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손을 드는 규칙을 도입하였더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혹은 화장실에 가도 되냐는 허락을 받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약속한 대로 학생들은 손을 들며 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저는 반 구호를 함께 외치게 하여 아이들을 집중시킵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직후에는 곧바로 후속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활동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되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시피 한류는 지금 큰 흐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K-pop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씩 한글 공부의 밤을 열고 학생들에게 기본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다고 했더니, 저희 학생들도 저를 "쌤"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저녁 수업시간에는 한국 활동 당시의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야기를 더 해 달라고 조릅니다. TV에서나 보던 바깥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듣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들은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오면 대단히 수줍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매년 학예회를 한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저는 꼭 학예회를 열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교실 앞에 나와 발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예회를 하자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참가할 모든 학생마다 노래를 골라 주고 방과 후 연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이 외의 모든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물론 감독은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진행자를 맡을 학생들도 뽑았습니다. 진행자들은 대본도 직접 썼습니다! 행사의 진행을 같이 도와준 친구들로 팀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행사 준비에 선생님들이 직접 추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관객과 심사위원의 역할만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연중 가장 큰 행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으나 제가 이것을 기획했다는 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예회는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와 의견을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기쁩니다. 제 지역의 교사들과 공유할 공식적인 기회는 아직 없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하며 이 교육교류사업에 지원해

보라고 독려했는데, 그 분이 2019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어서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였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가르치던 소중한 시간의 이야기를 책에 싣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정글의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벌써 두 번의 전근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평온한 삶이 그리웠지만, 바깥 세상에는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에서 꽤 큰 학교로 전근 온 것은 제게 큰 변화였고, 아직도 여러 적응들이 더 필요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큰 도전에 준비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에서 제 영혼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에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다시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 교육교류사업 후 후속 활동을 통한 개인적 변화와 성장

· Sok Thida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초청교사인 Sok Thida라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2019년 한국-캄보디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 특히 교육 체계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적응연수를 거치고 한국 선생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협력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3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GCED(세계 시민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다음의 여러 분야에서 저의 사고를 넓혀 주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교사로서 제 전문성이 향상되어 교육 방식, 교육 내용, 교육 목표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직접 본 후로 생긴 변화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영어 수업을 개선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후속 활동과 그 성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에 부합하도록 제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제가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과정에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반영해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명확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외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과 교실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동료 간 그룹 토론을 통해 친구들을 설득해 보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속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수업의 효과를 직접 본 후, 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어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맡아 한 반만 가르쳤지만, 영어 교과 교사가 부족한 저희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자청하여 4학년 여덟 반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장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영어 수업 코너를 통해 다채롭고 재미있는 영어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LCD 프로젝터, 각종 장식들, 영어책을 수업에 활용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편리해졌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졌으며, 학습 성과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된 후속 활동으로는 한국 교육 체계의 우수 사례, 제가 활동했던 인천용현초등학교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의 모습을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동료 선생님들과 저는 힘을 합쳐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 정신을 심어 주는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교정 밖의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 학교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주변 환경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후속 활동들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심어 주어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좋아하게 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 교정에 나무를 심어 학교 환경을 싱그럽고 푸르게 유지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1-6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소개 -학생 교류 프로그램-

· 임현빈

안녕하십니까?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임현빈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후속활동으로 우리학교와 초청교사 소속 학교와의 학생교류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공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공고는 1899년도에 설립되어 121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직업교육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약 6만여 명의 졸업생이 우리나라 산업의 곳곳에 배출되어 명실공히 한국 직업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1,500명 정도이고, 교직원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교육교류프로그램에는 2016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진행한 교사교류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태국 선생님 두 분이 우리학교에 배치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선생님 두 분이 각각 저희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선생님 세 분이 우리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학교와는 교사교류사업 종료 후에 학생 교류 활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 학교에서 활동하신 선생님들의 사진입니다.

우측 상단부터 2019년 초청교사인 인도네시아의 Ms. Fitra, Ms. Sry, Ms. Hesty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고, 그 옆에는 2018년 말레이시아 초청교사인 Mr. Farid와 Mr. Ibrahim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다녀가신 후에 서울공고와 진행한 후속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름에는 2017년 초청교사인 말레이시아 칼리파 선생님의 학교에 저희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방문하여 한국음식과 드론을 주제로 한 학생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2016년 초청교사인 태국 위왓 선생님 학교와, 2019년 7월에는 2018년 초청교사인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 학교와,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태국 위왓 선생님 학교에 다시 한 번, 서울공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방문하여 학생교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교류활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학생 교류 활동이 우리 학교 학생들과 방문 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는 것을 지켜보면서, 올해도 후속사업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COVID-19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활동으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2019년 12월에 말레이시아 파리드 선생님의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 26분이 우리 학교를 1주일간 방문하여, 상호 문화교류, ICT 교육, 한국문화 소개 등의 연수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공고에서 3개월 간 함께 수업 하셨던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교로 돌아오셔서 학생 공동 연수를 진행한 경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더욱 가까운 나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직업학교를 견학하고, ICT 연수를 받는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homestay'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이 한국 학생이 말레이시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올해에는 COVID-19로 인하여 해외방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로 학생 교류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말레이시아 Farid 선생님의 학교와 인도네시아 Fitra 선생님의 학교가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 컨퍼런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첫 번째 온라인 다자간 컨퍼런스를 서울공고와 말레이시아의 SMK Sungai Kertas (Mr. Farid, 2018 Exchange Teacher)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SMAN 3 Padang Panjang (2019 Exchange Teacher) 이 3곳의 학교를 연결하여 'Educational Responses against COVID-19 (COVID-19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였고, 이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였습니다.

각국의 학생 2명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다자간 온라인 컨퍼런스라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와 해외의 여러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교육교류사업'으로 참여하셨던 Ms. Fitra 선생님과 Mr. Farid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제시된 사진은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본인과 인도네시아 Ms. Fitra 선생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Mr. Farid 선생님이 화상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본 행사인 10월 7일 온라인 다자간 컨퍼런스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각각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열린 10월 7일 다자간 온라인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여러 언론에서도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된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한국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 교류활동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활동이 우리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ICT와 첨단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 학생들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로 한국에 오시는 초청 교사 분들은 모두 활발한 국제 교류활동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3개월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수업도 준비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쌓였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게 된 것도 이러한 후속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류사업에 협력교사로 참여하며 가장 크게 배우고 느낀 것은 다른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초청교사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만나는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초청교사들을 보며, 저도 글로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초청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선생님들 이외에도 다른 교류국가 선생님들도 초청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의 후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초청국가와의 교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국 학교가 더 많아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의 창업교육 활동 · Rosdiana Rawung Arnold

먼저, 2018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후 제가 진행한 후속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여 멋진 가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 참여 당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 대건고등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외국에서 가르쳐 본 적도, 남고에서 가르쳐본 적도 없고, 저는 무슬림으로 히잡을 착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건고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친근한 분위기에 제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건고에서 활동하며 제 나라와 문화, 저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뉜 것에 대해, 한국의 문화와 그 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활동이 끝나고 돌아와서 저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에 대해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고, 교사연합회의 전국 공유 컨퍼런스(National Dissemination Conference)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대건고 내 창업동아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 상업계열의 직업고등학교인 인도네시아 내 제 본교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돌아와 저는 제가 소속된 학교에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해보며 "창업 기반 학교"를 실천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정규 창업 수업 이외 추가적인 창업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 세미나와 온라인 창업 교육 등의 활동이 있었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만드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학교들은 온라인 학습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교과 과정이 실습과 전문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직업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독려해야 하고요.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은 엄격한 규칙 하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향후에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만들어보도록 지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COVID-19 상황에서 유용할 만한 물건인 손 세정제와 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손 세정제의 경우, 학생들은 현재 내부 테스트를 할 샘플 제품을 만들고 있어 완제품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제품만 만든 것이 아니라 포장 라벨도 학생들이 직접 만듭니다. 이와 더불어 쉽고 저렴한 원료로 홈메이드 천 마스크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간단히 재봉틀을 사용해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 집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 마스크를 실습 항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최근 의료용 마스크가 귀해지고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재료로 천을 골랐습니다. 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고른 마스크 재료 중에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양인 '바틱' 천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실습 수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COVID-19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수업들이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함양시키며, 팬데믹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짧은 발표를 통해 제 후속 활동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고 더 많은 긍정적인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교류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통해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였고, 배움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OVID-19가 종식되어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8 세계시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 변화 그리고 공감

·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곽진영입니다. 저는 파견 경험 덕분에 얻은 저의 변화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서로 변화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나는 누구인가?

저는 파견 전까지 대한민국의 한 도시, 대구의 토박이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고, 심지어 대학도 대구에 있는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가족, 친척 및 주변 사람들 또한 대구를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라온 주변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고나 관점을 가져볼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어렸을 적 학교에서 '지구촌 시대,' '세계화,' '다문화 사회' 등에 대해서 접했지만, 제 삶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에서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연찮은 기회로 가게 된 말레이시아로의 파견 덕분이었습니다.

2. Go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우연찮은 기회는 제 문화적 편견과 보수성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본 기회는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 모습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서 현지인과 함께 살아볼 수 있는 기회, 현지 학교에서 근무해본 경험은 제 교육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무하며 다름을 이해했고, 함께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지역에 국한되기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매체나 자료로 간접적인 경험은 가능하지만, 삶 속에서 체득하는 직접적인 경험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삶 속에 들어가 직접 느끼지 않는 다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편협한 사실이나 간접 경험으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경험해보으로써 제 가치관과 교육관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3. Change

1) 첫째, 바로 열린 마음(openness)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말레이계, 인도계, 중국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인종의 문화를 접하며 정말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말레이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다채롭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몸소 체험해 보았구요. 둘째, 명절에 말레이계 멘토선생님의 고향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분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통 무예인 실랏을 사부님께 배우면서 태권도와는 또 다른 무술을 경험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계 멘토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레이 문화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문화를 가진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을 옆에서 몸소 체험했고, 정답이 없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열린 마음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셋째는 옆집에 살던 중국계 가족과 친구가 된 경험입니다. 학교에만 있었다면, 중국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몰랐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역사, 종교, 환경 등 모든 요건들이 얽히고 허 만들어진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수적인 사고의 틀을 깨야만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했죠.

2) 두 번째로 바뀐 것이 바로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고 동료들의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한 점이 바로 저도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인도어를 배웠고, 학교의 동료교사와 친구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점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곧잘 따라하니 무척 좋아하고, 가르쳐줬고,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몸짓, 발짓, 표정을 모두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문법으로 소통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던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제가 말레이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한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구요. 이 영상은 아이들이 저에게 불러줬던 한국어와 말레이어가 섞여있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열린 마음과 소통에 기반한 공감과 이해. 그것이 바로 저에겐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교육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다름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Empathize

매년 타 문화권 학생을 담임으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상 국가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많지만, 실제로 잘 적응하는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켜본 그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의 저처럼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국한되어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만이라도 공감 받는 느낌과 이해해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이해로 모든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사에서 시작해서 학생, 학교,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어제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체육시간에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있던 팀이 졌습니다. 그 친구가 낙심하여 교실에 올라오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반 학생 4명이 나서서 것입니다.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그 중에는 또 다른 다문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참이 걸려도 오지 않기에 제가 내려가 보니,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러고는 눈짓을 보내며 귓속말을 합니다. "선생님, OO이가 달리기에 저서 속상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달리기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아픈 척을 했구요, 애는 한 번 넘어지구요, 애는 한 번 굴렀어요. 그래서 OO이가 1등 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다름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나의 날갯짓이 시작된거죠.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기회든 있다면, 꼭 가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바뀔 것이고,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실천하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1-9 다시 가슴이 뻐뻐..!

· 장병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16년 몽골로 파견을 다녀온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장병철입니다. 파견 당시에는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53번 학교는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모두 다 다니고 있구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셈이고, 약 3,000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9월 달 입학식을 시작할 때,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뻐뻐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구요.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100일 간의 활동 중 약 20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모두 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험을 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몽골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견될 무렵에는요,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미 꼭지점을 넘어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한국 문화도 알고 있었구요, 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몽골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교육교류사업의 발전단계에 들어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사의 각자의 전공, 그리고 각자의 교수방법을 서로 소개하고 교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가져왔던 로봇 수업을 같이 한 번 하면서 로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류하고 학생들이 즐기고, 그 배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과 시간에 제가 가져간 드론과 바퀴로봇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구요. 다행히도 제가 근무했던 53번 학교에서는 제가 로봇 수업을 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거기에 몽골도 한국처럼 로봇 동아리와 로봇 대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로봇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생각한건데, 제가 그 때 몽골에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동료 선생님, 그리고 특히 교감 선생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과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이 로봇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때 이 학생들과 12월 무렵에, 즉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4개 바퀴, 즉 바퀴가 달린 로봇으로 미로를 주행하는 그런 경기 대회였는데요. 몽골 국영 방송국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 한국인 교사가 지도한 팀이라고 소개를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남은 기억에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했지만, 아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몽골에 계신 특히 아까 나왔던 도르지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렇게 동아리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친구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정규 수업 시간,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드론 수업이었습니다. 화면에 드론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작게 종이 비행기처럼 떠 있는 게 드론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큰 드론을 가져갈 수 없어서요, 작게 만들어진 드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학생의 표정 보이시나요? 이 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때, 몽골 53번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하는걸 보셨구요. 이 수업의 학생들의 얼굴을,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저에게 많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수업시간에 바퀴달린 로봇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종을 해보고 자율자동차에 준하는 자율기능을 그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 경험이었구요. 이게 지금 대회를 나가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짜서 대회에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에 계신 한 분의 선생님이 저와 지금도 교류하고 계시는 도르지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에 돌아와서는 크게 2가지 활동을 하였는데요. 첫째는 몽골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근무하는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학교는 몽골의 신이랑 학교(New Era School)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서울로봇고와 주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VID-19 상황에서 우리가 웹 미팅을 많이 썼는데요. 웹 미팅 이용시스템, 즉 줌(Zoom) 같은 것을 이용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로봇을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도르지 선생님과 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몽골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르지 선생님이 영어를 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명드리면, 도르지 선생님이 학생들과 몽골어로 지식을 나눠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과정이었는데요. 몽골에서 계속 제가 만들고 함께 활동한 그 로봇 동아리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COVID-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저와 도르지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만났는데요. 이제 도르지 선생님도 줌(Zoom)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었고, 몽골에 있는 학생들도 줌(Zoom)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몽골에 있는 교사, 우리나라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교사 동호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수업을 할런지를 나누는, 즉 교수방법에 대한 그런 동호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직도 통역이 있어야 되겠지만, 통역도 저희가 한국에서 섭외를 하구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인텔에서 청소년 인공지능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꾸미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 동아리에 인텔 청소년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원격 지원 시스템을 인텔에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부하는, 또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몽골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사 동아리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COVID-19와 같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에 계속 모여서 이 교육교류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교사 동호회도 이용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활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몽골, 또 여러 개의 (국가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국가들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들 국가, 즉 몽골이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계속 교류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일차

•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순서	구분 (파견/초청)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초청	신혜선	보라초등학교	학교 안팎에 다문화 씨앗을 뿌려요
2	초청	Kamonrat Chimphali	Thanonhakkpittayakom School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선생님: 학생: 학교: 사회
3	파견	김강	팔마초등학교	느리지만 바르게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로서의 성장과 변화-
4	초청	Vinny Sutriani Raranta	Kinderfield School	교육교류사업 후 후속 활동을 통한 개인적 변 화와 성장
5	파견	신현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인천과 하노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6	파견	김명석	상관중학교	'발명'으로 하나되기
7	파견	Yeni Hartati	SDI Al-Azhar Cairo Palembang	우리 학교의 한국적 분위기
8	파견	이정환	강원명진학교	나의 인도네시아 파견사업 참가 이야기
9	초청	Monyneath Vann	Chea Sim Santormok High School	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

2-1 학교 안팎에 다문화 씨앗을 뿌려요

· 신혜선

"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Hye-sun Shin, and I am a teacher from Bora Elementary School. It's very pleased to be here today and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best teaching practic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ersonal growth after teacher exchange program."

안녕하세요? 보라초등학교 교사 신혜선입니다. 11월 중순, 한국은 계절상 가을로, 울긋불긋 단풍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여느 나무들과 같이 초록색 잎이었던 나뭇잎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며 노랑과 빨강계 물들었습니다. 저 또한 교직 성장기 '교육교류사업'을 만나 다양한 다문화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가며, 학교 안팎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저의 관심은 2016년 5월,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사교류사업의 파견교사로 선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100일 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MGS(Methodist Girls' School) 1"에 발령되어, 한국 문화 중심의 다양한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주제로 한 1주차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사회과, 미술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계획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국어와 바하사 말레이시안 2개 언어로 한국 동요를 합창하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공연 리허설 영상 잠깐 보실까요?

말레이시아 현지 학교 주변 풍경을 한국 동요의 가사로 바꾸어 불러보는 경험, 매우 놀랍고도 아름다웠는데요. 공연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밖에도 한류 붐을 타고 드라마나 아이돌 가요에 대한 현지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매일 조회 시간 말미에 5분 한국어 공부 시간을 마련해서 일상생활 속에 바로 적용 가능한 회화 표현을 연습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적인 콜로니얼 양식으로 주황빛의 교정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런 이국적인 교정을 배경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한국어 인사말이 울려 퍼지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서예, 공기 놀이, 오목, 고무줄 놀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친숙한 양국의 놀이 중심 비교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좀 더 열린 자세로 이해하고,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나아가,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아태지역 국가 교육부 관계자 앞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사교류사업, KOMTEP(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이라고도 하는데요. 효과성을 홍보해서 장차 양국 간 우호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추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다문화 사회의 '공존'의 모습은, 한국의 소속교로 복귀함과 동시에 "우리 학교 맞춤형 다문화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팀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교사교류를 통해, 연말연시 양국의 학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팸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 경험은 도내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자극이 되어,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창안했던 한국 문화 중심의 사회 프로젝트 수업을 모듈화하고 학회에 발표하는 후속 활동을 통해, 차후 해외에 파견될 초등 교사들이, 한국인 교사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적 대안을 제공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계속하여 재미있는 도전들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그간 교사교류사업을 통해 받았던 사업적 수혜를 직접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태국 초청 교사들의 배치 학교 업무담당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태국 교사들의 빛나는 협업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소속과 구성원 전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다문화 중심 교육과정"을 같이 창안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태국어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배움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똥얌'보다도 더 구수하고 진한 태국 교사들과의 인연은, 2018년에도 학교 간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월에는 태국교사 30명이 연수 차 한국의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인 교사와 태국인 교사가 코칭으로 참여한 '똥얌 라면' 실습 수업을 통해, 한국과 태국 문화의 실제적인 퓨전 가능성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양국 교직 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대담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공감에 기초한, 존중과 연대의 마음이 길러지는 아주 훈훈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지역 신문에 우수 교육 사례로서 취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안팎으로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교류 영역의 폭을 넓히는, 실효성을 높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그 사이 근무하는 학교가 바뀌어도, 교육교류사업과의 인연이 5년 차에 접어든 지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상생을 희망하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품고 온 씨앗이 함께 심고, 가꾸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학교 안팎에 아름다운 무지갯빛 다문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초록색 잎이 빗물과 열기를 머금고 가을이 되어 노랑과, 빨강계 단풍으로 물드는 것처럼, 교육교류사업과 함께 넓혀간 다문화 이해 경험이 교사로서의 나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학교 안팎에 다채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선생님; 학생; 학교; 사회

· Kamonrat Chimphali

안녕하세요, 제 후속 활동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용인강남학교에 파견되었던 Kamonrat Chimphali입니다. 저는 태국 교사이며, 제가 자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10년째 과학과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Start from you, connect to others"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모든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더 나은 교수법을 찾기 위한 교사들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줍니다. 사업에 참여한 이후, 이제 저는 다른 나라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변화를 일으키고 SDG(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공감능력, 상호 연결된 느낌, 전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키워 주기 위한 강력한 교육의 도구로 SDG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함에 있어 말에서 행동으로, 한 사람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SDG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 교실을 소셜미디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을 SDG 관련 문구로 장식하여, SDG와 관련된 활동을 알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이 활동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모아 팀을 꾸렸습니다. 제 활동에 관심을 보인 선생님들과 "교사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SDG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SDG 관련 활동을 기획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SDG에 관한 수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소화기관에 대해 배울 때, 이 수업 내용을 SDG 중 "기아 퇴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이로써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학교, 마을,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 집,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보며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데이터를 조사한 학생들은 음식은 소화와 관련한 것 이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저희 팀은 교실을 월드 카페로 만들어 여러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월드 카페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 활동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의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법을 잊게 마련이다"

"물이 오염되면 밥이 독이 된다"

"밥을 약처럼 먹지 않으면 약을 밥처럼 먹게 될 것이다"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지구를 지키자"

"음식쓰레기를 줄여 기후를 보호하자"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의 결론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교 식당에 걸었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을 건강하게 먹기,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등에 적용하여 더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건강한 간식과 허브 주스 만들기,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 용기 만들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그러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또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행사 때마다 SDG에 대해 배우고, 사진을 찍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SDG 관련 활동을 제 소셜미디어에 올려 태국의 교사들이 SDG에 대해 배우고 또 가르치도록 홍보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SDG에 대해 교육하고, SDG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공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SDG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책은 다음의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SDG의 중요성
2. SDG란 무엇인가?
3. 교사가 SDG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4. 인식의 힘
5. 과학 과목에서 SDG를 교육하는 방법
6. 배우고 행동하기
7. 태국의 교실에서 어떻게 SDG 목표를 세울 것인가?

제 학생들과 함께 서비스 기반 학습(Service-Based Learning, SBL)의 일환으로 제 프로젝트를 초등학교와 연계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과 서비스 학습(SBL)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전국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미디어펀드(Thailand Media Fund)가 저희를 모든 태국 교사들에게 SDG 활동 및 SDG 수업계획을 공유하는 유용한 교실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더 나은 세상,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 실천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생님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 준 이 교육교류사업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두에게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3 느리지만 바르게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로서의 성장과 변화-

· 김강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다녀온 초등교사 김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해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한 이 경험은 저에게 교사로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는 나라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험을 하고나니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너무나도 충분히 넘쳐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뭘까, 점차 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나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 또한 막연하게 중요성만 생각했지, 현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파견을 계기로, 다문화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길러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다문화교육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교육역량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외국에 파견되어서 현지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경험해보니 교사가 지식적으로만 다문화 교육과 글로벌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다문화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견 활동을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과정을 돌이켜보며 국내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저는 평소에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교육역량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에 예비교사를 포함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다문화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다문화 교육, 글로벌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식적으로만 다문화 교육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교류사업과 같이 직접 다른 문화의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제 관심은 다문화교육에서 문화다양성으로, 문화다양성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방향이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문화다양성을 교육하는 것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과 논문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세계시민교육연구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대면 모임은 자주 못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교사들이 서로의 그 고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교육사재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현장에서 녹여내려고 노력중입니다.

좋은 기회로 이번 하반기에 제가 소속되어있는 세계시민교육연구회와 같은 지역의 대학교가 연계하여 예비교원의 다문화 인식개선 및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올 11월에 교내 IGT(I'm a global teacher) 수업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섯팀의 예비교사가 수업대회에 참여하고, 저는 그 중에서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는 문화영역 수업팀의 코칭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문화교육문제 연구소의 일원으로 지역문제플랫폼에 선정된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려고 노력중인데요. 현재는 'COVID-19로 인해 교육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구시와 협업하여 진행코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8월, 3개월 동안의 짧은 파견 활동이었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어떤 교육활동을 해나가야 하는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고, 제 직업을 더욱 사랑하게 해준 그 3개월의 시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4 교육교류사업 후 후속 활동을 통한 개인적 변화와 성장

· Vinny Sutriani Rarant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초청교사인 Vinny Raranta입니다. 저는 2018년 한국-인도네시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특히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교사가 되셨나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요? 근무 시간이 유연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 두 가지는 처음 드린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면서 교사로 일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사업 참여 후 후속 활동을 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변화와 교사로서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 저는 세계시민교육(GCED) 컨퍼런스에 참여한 후 유네스코 학교로서 관련 교육과정을 채택한 인천대건고등학교에 배치되면서 지금까지 저의 학습법과 지도 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사고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전력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매일 한국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일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예컨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거나 공중 도덕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그 실천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저는 보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한국의 학교 생활을 보면서 교육과정, 교수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성 교육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본 것이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저는 영어 수업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접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서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토론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자유를 주니 학생들은 더 많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운 제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시야를 확대하여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의 인터뷰입니다.

"Citra Kasih Senior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Patrick Nolan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세계시민교육 수업'이라는 영어 수업을 통해 기존과 다른 유형의 공부를 경험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5개의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민족에 대한 조사를 그룹지어 수행했습니다. 함께 포스터를 제작하고, 조사한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발표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며 다른 중요한 측면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세계시민교육 수업은 정말 굉장합니다!"

교육교류사업은 저에게 파견교사뿐만 아니라 다음 해 방문하신 한국 선생님들의 협력교사로서 활동하는 귀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선생님 세 분이 약 2주 간의 일정으로 자카르타에 위치한 Citra Kasih 고등학교에 오셨을 때, 저는 협력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초청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초청교사로서 활동했던 지난 경험들은 이협력교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은 정말 제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 인천과 하노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 신현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과 하노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베트남에서의 제 경험과 귀국 후 한국에서의 후속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파견되어 처음 만나게 된 베트남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수업의 내용이 알차고, 선생님들께서는 훌륭하게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소 진도가 많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따라가는 베트남 학생들의 모습이 아주 대견하였습니다.

저는 하노이에 위치한 응옌 트리퐁(Nguyễn Tri Phương) 중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저는 현지 학생들이 이미 친숙한 하노이 시내의 문묘, 롱비엔 철교, 서호 등을 방문하여 그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그들이 관심이 큰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현지 문화와 유익에 연계해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큰 호응을 보였고,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역시 현지 베트남의 대중문화나 역사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마침 다문화적인 문화 요소가 충분한 지역에 위치한 인천여상의 학생들과 함께 이와 같은 맥락의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그 주변은 일본 강점기 시대의 유적과 차이나타운이 매우 가까운 관계로 위와 같은 수업에 최적화된 환경이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베트남에서 체험한 다문화 감수성, 선택의 여지 없이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세계, 또한, 이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야만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개념을 심어주고, 어떤 활동을 해야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며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적인 요소, 그것과 같이 체득되어야 할 문화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 실천적인 요소 등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회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원별 학습 목표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며, 개인별 및 팀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람직하게도 영어 교과서 내용 구성 자체가 저와 학생들이 진행하기로 한 세계와, 사람과, 내 주변과, 나와 의 연대와 이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헌신도가 더욱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영어 능력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좀 전의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학교 내의 유적 탐사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뿐 아니라, 기후·환경적인 이슈들 또한 수업시간에 의미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영어 수업의 기능적인 면에서 충실성을 더해주면서도, 또한 우리 학생들이 살아나갈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PPT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온라인 세계탐방, 나의 역할 모델 찾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낯가림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자료의 검색, 활용, 기획 및 편집, 발표의 전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고 완성해 나가면서 기대 이상의 높은 성취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상, 영어 수업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은 항상 아쉬운 점이였으나, 학생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과정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변에 대한 이해, 나의 롤모델로서의 다양한 세계적인 인물들에 대한 탐구,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식견이 쌓여 언젠가 그 모두가 학생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 우정, 평화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6 '발명'으로 하나되기

· 김명석

저는 2017년 캄보디아 Sisowath high school (NGS)에서 3개월 동안 물리학을 가르쳤고, 그곳에 근무하는 짧은 기간 동안 현지 학생들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발명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발명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있던 본인의 근무학교인 '상관중학교'에서 캄보디아 Sisowath 과의 인연을 이어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2017년에 최초로 상관중학교의 16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들이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5박 7일 동안 Sisowath을 방문하였고, 2018년에는 16명의 학생들과 5명의 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상관중학교 학생들과 Sisowath 학생들이 서로 한 장소에 모여서 "발명"을 주제로 3일 동안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일정들은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 탐방 등 문화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캄보디아 Sisowath의 학생 12명과 교사 3명이 상관중학교를 방문하였고,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관중 학생 16명과 교사 4명이 다시 Sisowath을 방문하여 교류하였습니다.

발명을 주제로 양국의 학생과 교사들이 교류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발명'이라는 것이 어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 속에서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교류 프로젝트는 양쪽 학교의 훌륭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저희 학교와 Sisowath 학교 선생님들은 이 교류 프로젝트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교류를 지속하고자 모든 계획을 완료하였으나, COVID-19 상황으로 안타깝게 대면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관련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Sisowath에 있는 동안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몇몇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아이디어를 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파견 복귀 후 상관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Sisowath을 방문하여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주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등 삼각대 보다 개선된 제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상관중학교 학생들이 미리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Sisowath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3일 동안 수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룹별 수업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보다 위생적인 변기"라는 주제로, 상관중 학생들이 방문 전 준비한 발명아이디어를 발표하고, Sisowath 학생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isowath 학생들이 준비한 아이디어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자료는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캄보디아 TV뉴스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한국 상관중의 Sisowath 학교 방문을 통해 Sisowath 학생들이 혁신 과학에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양국 학생들이 "기술 시대의 혁신"에 대한 주제로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명에 대한 학습을 함께 소통하며 진행하고, 상호 학생 및 교사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우던 현상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5월에 Sisowath 학생들 12명과 교사 3명이 상관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수업 참관과 강당에 모여 전통춤을 선보이는 등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를 짧게나마 서로에게 선보였으며, 홈스테이 형식으로 학생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겨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 전주에 위치한 한옥마을 방문과 비빔밥 만들기 체험 등을 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기간 동안 Sisowath 학생과 교사들에게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은 Sisowath 학생과 교사가 상관중학교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머문 시간이 짧아서 더욱 아쉬웠겠지만, 몇몇 학생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에 상관중에서 다시 Sisowath을 방문하였고,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발명과 연관 있는 공작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처럼 3차례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첫 번째로, 나라가 다르고 일상의 문화가 서로 다른 캄보디아 Sisowath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 개인 간의 만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Sisowath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은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적극성을 부여하였고, 세 번째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여행사의 패키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외형적인 현지 모습이 아닌 Sisowath 학생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의 문화를 경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쇼핑몰과 아파트,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고층빌딩을 보며, 세계의 여러 도시가 놀랍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며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Sisowath에서 교사로서 현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이 작은 계기가 파견 복귀 후 본인이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그 모든 경험들을 새롭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7 우리 학교의 한국적 분위기

· Yeni Hartati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가 2019년도 교육교류사업 참가를 통해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또 저희 학교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Yeni Hartati입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Palembang)에 위치한 Al-Azhar Cairo(Azhar) 학교의 교사입니다. Azhar 학교는 팔렘방(Palembang) 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두 가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6학년을 위한 아이패드 교육으로, 학생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펀러닝(fun learning)입니다. 학생들은 펀러닝 방식을 통해 교실 안팎에서 여러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전부터 펀러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 내 활동으로 학생들은 한국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한국 노래와 놀이를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과 가르침을 주신 고은학 선생님과 심청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미있는 영어,' '마켓 데이,' '전통놀이' 수업도 진행했는데, 이 때 학생들은 한국 선생님들께 인도네시아 전통놀이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도 제기차기, 윷놀이 등 여러 한국의 전통놀이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음식 만들기와 공예품 만들기 활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활동들을 하고 나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 '코리안 편 타임,' '세계 전통의상의 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표현'은 학생들이 일상적인 표현에 한국어를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학교에 한복, 한국의 전통 놀잇감 등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저희 학교는 '코리안 편 타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색깔에 대해서 배울 때, 색칠 공부판에 그려진 한복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미술 활동을 하며 하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잘한 학생들은 상으로 한복을 입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타자 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로만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나 몇몇 단어를 한글로 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배울 때 한국의 전통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사업 참가 이전까지 저희 학교는 매년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는 34개의 주가 있고, 약 1,340개의 부족들이 저마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참가 이후,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케바야, 한국의 한복, 인도의 사리 등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는 "세계 전통의상의 날"로 행사가 바뀌면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가를 통해 얻게 된 멋진 활동들은 저희 학교에게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은 분들에게 인도네시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나의 인도네시아 파견사업 참가 이야기

· 이정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라주알디 글로벌 이슬람 스쿨(The Lazuardi Global Islamic School)에 3개월 동안 파견활동을 하고 돌아온 강원명진학교의 이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견됐던 라주알디 글로벌 이슬람 스쿨(The Lazuardi Global Islamic School)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사립학교 같았습니다. 물론 교육열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통합교육(장애/비장애 인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저도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견활동이 더욱더 의미 있고, 저에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라주알디 학교에는 학급마다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등교하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1시간 동안 관찰이나 상담을 하구요. 오전에는 국어(인도네시아어), 수학 등의 수업을 하고, 수영이나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했는데, 저도 특수교육을 함께 했구요. 오후에는 다른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문화 수업을 했습니다. 마침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했고, 저도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한국 문화 수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저는 중학교에서 수업을 했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수업도 해달라고 해서 방학 때 직접 집중적으로 한국문화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석달 동안 파견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즈음, 아이들이 작별인사나 환송파티도 해주었고, 그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회의 좀 하자고 해서 가보니까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교류 경험이 있어서 관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에 11월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류회를 했고, 합동 공연도 했구요.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 친해지고, 같이 수업도 하고, 현장 체험학습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교류회를 진행했구요. 아이들은 그렇게 헤어졌고, 저는 지금도 SNS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아이들하고도 같이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관현악 합주 공연을 한 뒤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춤 공연도 하면서 교류회를 진행했구요.

제가 인도네시아 교류활동을 하고 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한 번 해보자면, 가장 저에게 좋았던 것은 인도네시아라는 이슬람권 국가에 가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점점 한국 사회도 다문화 되어가면서 이슬람권 국가들 하고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 많은 어드밴티지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거기 특수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한결같고, 열정이 물론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을 봤을 때는 학생들을 맨날 관찰하고 1시간 동안 그날그날 기록을 한다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정성스럽게 학생을 위한 개인 개별화 교육계획을 만드는 거에서 그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특수교육이나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굉장히 열의가 있는 전문가들과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같이 연락하면서 노하우나 정보공유 이런 것들 서로 잡다한 소식들 주고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의 문화권,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인도네시아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된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교류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9 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

· Monyneath Vann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onyneath Vann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Chea Sim Santormok 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우선,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에서 저희 학교의 발전상과 제 후속 활동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입니다. 저는 2018년 한국-캄보디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캄보디아 초청교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여수미평초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여수미평초등학교에서 활동하며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푸른 축구장과 쓰레기가 없는 운동장, 딱 한 곳의 쓰레기 처리장 말고는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는 학교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념식과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실마다 수업과 학습을 지원해주는 정보 기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요리 교실 등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위생적인 급식실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환경 외에 저는 영어 수업에도 주목했습니다. 원어인 선생님이 계시는 두 개의 영어 교실이 있었는데요. 영어 교실은 학습을 도와줄 기자재들로 잘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학교는 교육교류사업의 파견교사 배치학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선생님 두 분이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요. 영어 과목의 임준목 선생님과 과학 과목의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영어와 과학 과목에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기자재들로 저희 학교의 실험실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과학 이론을 실습과 연결하여 지도해주셨습니다. 임 선생님은 영어와 한국어 둘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의 학교를 경험한 저는 저희 학교를 정돈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학교 내 선생님들과 학생들, 지역 사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학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앉아서 쉬거나 친구들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운동장인데 아직 적절한 규격을 맞추지는 못 했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한 교내 '깨끗한 환경 만들기' 활동의 슬로건은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깨끗한 우리 학교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입니다. 적절한 장소에 일반/재활용 쓰레기통을 두었습니다. 교실과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통을 치우고,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되어 교내 쓰레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실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교과서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학생 위주보다는 교사 위주였고, 교실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수법을 바꾸어서 영상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함께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교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과학 교사들은 실험실에서 실험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통해 수력발전 장치에서 전기를 얻어내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또한 영상실과 더불어 국제 활동실, 독서실, 실험실, 회의실, 전산실 등 다양한 활동반들이 생겨 학교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저희 학교의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회는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는 농구와 배구 코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실 앞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어 학생들을 위해 더 푸르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차

•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순서	구분 (파견/초청)	성함	소속	발표제목
1	초청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Keningau Vocational College	TVET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2	초청	박지혜	금장초등학교	나로 인해 이어지는 매듭
3	초청	Melandro De Los Reyes Santos	Tondo High School	과학수업을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
4	초청	서정래	인천도화초등학교	낮선 것을 친근하게 만들어간 나의 교육 교류 이야기
5	파견	김경미	인천은지초등학교	내일을 여는 세계시민교육
6	파견	Ma. Eirish Santos Zulueta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	영원히 빛날 우정
7	파견	이호석	임진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실천이야기
8	파견	Henna Sehgal	Sekolah Kebangsaan Minden Height	절친한 자매들

3-1 TVET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에 위치한 Keningau Vocational College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Khalifa Affnan입니다. 저는 2017년 한국-말레이시아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발표의 주제는 "APTE Experience 2.0: The Gold, The Gain & The Glory"입니다. 제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3개월 동안 파견을 다녀온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공고에서 활동하던 당시, 학교는 "직업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며 가진 저의 비전은 간단했는데, 바로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지역 사회에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직업교육 체계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 사회에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업 대신 직업 능력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은 아직까지 대체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 자료를 제 프로젝트에 활용하여 주변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시각 자료는 흥미를 유발하는 가장 쉬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 참여 이후 직업교육과 관련된 후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활발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이후 제 후속 활동에 대해 'gold(금),' 'gain(내가 얻은 것),' 'glory(영광)'로 구분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old(금)'입니다.

2017년도에 진행한 제 첫 번째 후속 활동인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저는 학생들이 드론과 로봇 기술에 관심과 지식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제 'gold'입니다. 드론과 로봇은 저희 학교가 있는 시골에서는 새로운 지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학생들과 NGO, 지역 사회와 함께 드론과 로봇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상호 심화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스스로 여비를 모으던 학생들의 의지도 'gold(금)'에 속합니다. 이 방문 프로그램의 이름은 'Gaja! Korea'로, 17명의 말레이시아 대표들이 한국의 기술 및 직업교육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일정이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학교 방문과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gain(내가 얻은 것)'입니다.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학교들과 함께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17년도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한 3일간의 드론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 12명, 교사 4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드론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15대의 첨단 드론을 지원받아 저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서울공고와의 1주일 학생교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사 4명과 학생 10명이 한국에 방문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재활용품으로 드론 본체를 만드는 방법, 비빔밥과 김치 등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사바(Sabah) 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활동들은 국영 방송국과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대동중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명의 한국 대표단이 사바(Sabah) 주를 방문하여 저희 기관에서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학생 멘토들과 매칭되어 학교 캠퍼스 투어, 보물 찾기, 현지 음식 경험하기 등 많은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도 기초 한국어 문장들과 드립 커피 내리기 등을 배웠습니다.

제 후속 활동의 결과 중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바로 'glory(영광)'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제 시각을 넓혀주었으며,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테트릭스 로봇을 구입하고, 아두이노(Arduino)를 사용해 코딩을 했습니다. 그 로봇으로 저희 학교 팀은 2018년 7월 World of Robotic 국내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 3등으로 입상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2018년 10월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전세계 14팀이 참여한 이 콘테스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초, 로봇과 드론에 대한 저의 열정에 힘입어 저희 팀은 소속 기관의 STEM 프로그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국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M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의 줄임 말로, 사바(Sabah) 주의 직업교육 기관들이 각종 워크숍, 세미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교류사업은 제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의미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Gold,' 'Gain,' 'Glory'로 표현한 저의 사업 참여 및 후속 활동 경험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나로 인해 이어지는 매듭

· 박지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은 저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파견교사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것만 해도 꿈을 꾸듯 행복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초청 사업 담당자로 한국에서 태국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 역시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고 난 뒤 정말 하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항상 제 가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교육은 세계, 문화, 평등, 행복이라는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이었는데, 그것을 나누기보다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수업 환경과 많은 업무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태지역 국가에 파견을 나갈 교사를 뽑는다는 공문을 보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구나. 가슴이 뛰는 일이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 시켜 도전을 했고, 다행히 좋은 기회로 2019년 상반기에 캄보디아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간 캄보디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같은 캄보디아 학교에 근무하게 된 한국 선생님과 마음을 맞춰 현지에서 할 수업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던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이 내가 하는 수업들을 좋아할까 정말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캄보디아 학생들은 순수하면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멀고도 낯선 곳에서 온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 내내 저를 바라보는 학생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내가 교사가 되길, 지금 캄보디아에 오길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면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 수줍게 다가와 친절을 베풀어 주던 캄보디아사람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친근하게 대해 주신 현지 학교의 멘토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 수업 및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준 통역 선생님,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그리고 즐겁게 파견 생활을 함께한 우리 한국 선생님들. 이 모든 것들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캄보디아 파견생활로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외국에서의 생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힘들것구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새로운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의 연속은 생각의 다양성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정든 캄보디아를 뒤로 하고 7월 31일, 한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8월 1일, 학교에 귀국 신고를 하자마자 저는 파견교사에서 초청사업 담당교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2019년 저는 근무하던 학교를 옮겼는데, 새로운 학교가 다문화국가 교사를 초청하는 학교인 줄 몰랐습니다. 업무를 배정받고 인수인계를 받으며 '정말 우연이 겹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신기했습니다. 아직 캄보디아 파견교사인 것 같은데 태국 선생님을 맞이하는 초청사업 담당교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 캄보디아 멘토선생님이 많이 애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실 태국 선생님을 맞이하러 가는 내내 내가 캄보디아에서 받았던 사랑을 태국 선생님도 느낄 수 있게 힘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두 태국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교수 능력이 뛰어나시고, 학생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다정히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아름다운 미소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제가 먼저 파견교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수업을 했을 때 한국인 선생님의 수업을 캄보디아 학생들이 참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캄보디아 학교의 수업 및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캄보디아의 교육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태국 초청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생기면 가능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하는 전통놀이인 윷놀이하기, 비빔밥만들기, 예체능 수업시간에 태국 선생님과 함께하기,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불국사로 가는 현장체험학습 동행하기 등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주간인 유네스코 다문화 이해 주간을 만들어 태국 선생님께서 준비한 특별 수업으로 한국 학생들이 태국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협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태국 선생님들께서 이 모든 활동을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캄보디아 선생님들과 시간을 좀 더 가지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저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교사 동아리 및 태국 문화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각 나라의 교육, 문화, 생활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두 나라가 더욱 가깝게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몇몇 한국선생님들과 함께 식사시간을 가지며 친분을 다졌고, 경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멘토교사로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평소 저는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함이라는 가치에 이해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파견교사 또는 초청교사만 했었다면 과연 그만큼 이해를 하며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우연이 가져다 준 기회로 저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선생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문화적 차이나 잘 모름에서 오는 일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하려 하셨고, 그 분들의 포용력과 따뜻한 마음은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해주셨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파견교사와 초청사업담당교사를 바로 이어서 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파견교사로 다른 나라의 학교에 파견되는 것과, 외국에서 오신 초청교사를 담당해서 멘토교사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은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면이 많았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 한국인 교사와 다문화국가교사가 함께 협의하고 또 그것을 서로의 국가의 선생님들과 나누며 함께 발전해나가는 것이지요. 그 중 저는 운이 좋게도 파견이라는 줄과 초청이라는 줄을 함께 거머쥐어 단단히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제가 맺은 이 매듭이 더욱 단단히 조여져 한국과 다문화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 과학수업을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

· Melandro De Los Reyes Santos

저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지지합니다. GCED는 제가 매우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창의력과 혁신,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의지에 대한 저의 열정과 사랑을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실에서부터 GCED 실천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필리핀에서 GCED를 독려해 온 저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가는 현재 GCED를 기존 교육 과정들과 융합시키기 위한 발전 단계에 있지만, 교사들이 힘을 합쳐 GCED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관련 교육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내 GCED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교사들의 노력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이해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필리핀 교육자들이 'Bayanihan' 정신을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2016년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면서 GCED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문화와 필리핀 선생님들의 참된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교육교류사업은 저의 삶을 바꿔 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읍수성초등학교의 동료 한국인 선생님들 및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 가면서 문화 다양성과 감수성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저를 환대해 준 정읍수성초등학교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배움의 경험을 동료 선생님들 및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함께 할 수 있고, 인류를 나눌 수 있다는 공동의 가치와 책임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In Sciencia Nos Solidaris(우리는 과학 안에서 하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GCED을 과학 과목에 접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과학 교사들에게 GCED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위한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사들이 기존의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에 GCED를 접목하여 시연, 수업 예시, 맥락에 맞는 GCED 학습 자료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같은 해인 2017년, 16명의 참가자들이 GCED 학습 자료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맥락에 맞게 개발한 학습 자료들은 사회적 책임, 환경 인식,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 등 비인지적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가지를 7학년 과학 과목에 접목시켰습니다. 2017년 말,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교사교류포럼 제1차>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2018년, GCED 학습 자료를 계속해서 과학 수업에서 활용하면서 저는 SDGs 과제들 중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에 중점을 둔 '아이 러브 H2O'라는 학교 기반 수업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식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 식수 여과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어보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Villegas 고등학교의 중등 교사 선생님들의 현직 연수 중 모든 학습 분야에 GCED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지도자들 간에 GCED를 공유하면 그들 각각의 학교에 GCED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SDGs를 위한 학교 기반의 GCED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과학의 달 행사 기간 중 이제는 교내 과학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된 GCED 학습 활동 몇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GCED와 SDGs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과학 학습 스테이션,' '단체 노래자랑,' 그리고 '과학 영화제'이 그것입니다. '과학 학습 스테이션'을 마친 학생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감염 경로를 끊는 방법, 올바른 손 씻기와 소독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SDGs 15대 목표인 <육상 생태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라는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을 뽐내고, 환경 보호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재능을 나누는 협동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과학 영화제는 SDGs 14대 목표인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활동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가 내 GCED를 장려하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들이 2019 GCED 우수 사례(Best Practices)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PTE는 저희 국가에서 GCED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육자들과 공유하는 이러닝 플랫폼인 'GCED 온라인 캠퍼스'에 저희 프로젝트가 소개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신 분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고 GCED를 지지하기 시작하신다면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저는 <제 4회 글로벌 역량 구축 워크숍>에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감사하게도 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국이 수여하는 2019년도 우수 프로젝트 수행자(Best Project Implementer)로 선정되었습니다.

GCED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저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가 봉쇄된 기간에는 'ICO-KPTEP 학습 시리즈'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GCED 전파자로서 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GCED 온라인 캠퍼스'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개발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세계시민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톤도(Tondo) 도시의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COVID-19로 힘든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받아야만 하는 양질의 접근 가능한 교육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4 낯선 것을 친근하게 만들어간 나의 교육교류 이야기

· 서정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도화초등학교 교사 서정래입니다. 저는 본 교육교류사업으로 2015년 베트남에 파견된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선생님들을 매년 저희 학교에 초청하여 제가 멘토교사로서 이 사업을 담당했었는데요. 저희 파견 활동과 파견 사업 참가 이후의 후속활동으로서 제가 초청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김동초등학교에 파견되었는데, 처음에는 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적응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무래도 파견교사로서 단기간 현지에 파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관수업 기간 동안 학교가 공개 수업 일정을 잡아주어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수업시수와 내용을 조율하는 데 학교와 많은 의논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주제를 한국과 베트남의 의식주, 놀이, 자연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과 아오자이를 비교하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나중에 한국 학생들과 화상 교류 수업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전통의상에 대해 서로 비교한 후, 한국 학생은 아오자이를 디자인하고, 베트남 학생은 한복을 디자인하여 서로 작품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베트남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구상하고 역할을 배분하여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베트남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수업안을 개발하여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수업을 준비했던 베트남 선생님들은 우리와 소통하며 수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탐구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열정적인 현지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 해인 2016년에 저희 학교에 베트남 선생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 한분은 제가 파견되었던 김동초등학교에서 오셨는데, 당시에는 짧게 이야기를 나눠 얼굴만 아는 선생님이었지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제가 베트남에서 받은 환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순조롭게 도와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 사람들과 학교에서 받았던 좋은 인상 덕분에 저도 베트남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식사하며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긴 후에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초청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근무하게 된 학교는 저 스스로도 낯선 곳 이었고, 동료 선생님들에게 초청 사업 또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서 함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언어의 장벽 뿐 아니라 극복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사업의 취지도 설명하고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지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꼭 먼저 말 걸지 않아도 마주치면 웃음으로 선생님들을 마주하기, 외국에서 오신 초청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조력자로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사업의 취지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각 가정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드디어, 태국 선생님이 학교에 오신 첫 날, 학생들을 방송 조화로 만나는 자리에서 태국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직접 노래하며 전통춤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고, 아이들은 태국 선생님을 복도나 교실에서 만나면 먼저 다가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 막막해 하시던 선생님들도, 막상 태국 선생님들을 위한 참관수업이 진행되자,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며 태국 선생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도, 회식 자리에도 태국 선생님을 항상 초청하여 함께 소탈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선생님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한국 선생님들 중 먼저 다가가는 선생님도 생겼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친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태국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에 마음이 움직인 점이 컸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여 태국 선생님을 초대할 학년도 있었습니다.

태국 선생님과 가까워지자 수업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멘토교사로서 제가 태국선생님과 수업에 대해 협의한 후 결과를 한국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꾸려나갔는데, 나중에는 학년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수업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사업 후반부에는 한국 선생님과 태국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여 협력 수업을 추진하고 일부 수업을 전교사에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다보니 태국 선생님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나중에 우리 학교에 오셨던 태국 선생님을 만나러 태국에 직접 가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태국 동료 교사이자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태국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인도네시아 선생님을, 그 다음 해에는 몽골 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외국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종 학부모님들, 학생, 교직원 구분 없이 내년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생님이 오시냐고 묻곤 합니다.

외국 선생님들이 마지막 퇴근하시는 날, 전교생이 나와 선생님들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과 그동안 쌓인 추억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힘차고 우렁찬 함성으로 인사를 하는데, 언젠가 이 선생님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만나게 될 선생님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학교에 생기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한 명의 파견교사로부터 시작된 교류가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 그리고 아태지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분들이 계신 학교와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께 낯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돈독한 우애를 나눌 수 있음을 알리는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3-5 내일을 여는 세계시민교육

· 김경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지원하여 그 해 여름 8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 파견을 다녀온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 김경미입니다. 필리핀에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걸 보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필리핀 파견을 다녀온 후 세계시민교육을 접하면서, 제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또 학생들과 함께 실행해 옹긴 세계시민교육 활동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필리핀을 다녀온 후 파견 프로그램과 교류 사업,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변화

둘째, 파견 이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인적인 연구들

셋째, 개인적 연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본 사례들

넷째,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교육의 방향성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필리핀 파견을 가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교육, 환경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견 이후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필리핀 파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짧은 비디오를 잠시 함께 볼까요?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필리핀에서의 교육 활동으로 다른 나라의 교육 활동 및 문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생각 변화로 인해, 파견이후 개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에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학습 연구년을 신청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 곳곳을 둘러보며, 세계시민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반학습(PBL: Place-based Learning)을 주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심화연수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에서 1주일 동안 세계시민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지역기반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해 주어 현장 수업 적용 시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고, 연구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직접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2019년에 실행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중 환경보호 캠페인,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독후 활동,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물건 만들기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에 3학년은 가르치면서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학교 연못에 관심을 가지며 연못이 잘 관리되지 않아 물고기가 죽는다는 제보를 받게 되어 이를 주제로 약 2달 동안 연못 보호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만큼 희망하는 6~7명의 학생들에게 연못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권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캠페인 문구와 내용을 정해 포스터를 만들고 이를 가지고 연못으로 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베틀 시장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돈을 자유롭게 기부하였고, 굿네이버스를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과 관련된 독서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책을 선정하여 세계평화나 전쟁 등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기, 다른 사람들의 식생활, 의생활과 관련된 열쇠고리 만들기, 다른 나라 추수 감사 문화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년교육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학습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작은 씨가 보이시나요?

이 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미래의 큰 숲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작은 씨를 심어나가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 공감하시나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첫째,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야겠으며, 둘째, 교사 및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고, 셋째,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시민교육 자료들이 개발되어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 영원히 빛날 우정

· Ma. Eirish Santos Zuluet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쉬 선생님입니다. 저는 필리핀 선생님입니다.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한국 선생님들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파견교사들을 만나기 전, 저희 학교의 Mrs. Eugenia V. Guerra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항상 무언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파견 오시는 한국 선생님들께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여정을 즐기면서 교사로서의 재능을 더욱 가꿔보세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2016년, 작은 친절들이 우정을 싹트게 했고, 이렇게 싹튼 우정으로 저희 학교와 파견 교사인 박신애 선생님의 학교 사이에 다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펜팔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기질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제 동료 선생님들과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경쟁의 부담을 줄여주고, 협업의 가치를 중시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 시각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습 과정의 에피소드를 되돌아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점을 실생활에서나 세계화 맥락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팔 프로젝트 외에도,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다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애 선생님과 제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학습 교재를 만들어 사전녹화 원격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저희 학교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반영하는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 전 분야를 통틀어 GCED를 반영한 53가지의 검증된 교수법을 취합할 수 있었고, 이것을 PAGLINA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 교육 시스템이 원격 학습으로 바뀌면서 AP Hub라고 불리는 사회 과목 온라인 영상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AP Hub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대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가르치고, COVID-19 이후의 시대에 필요한 관용과 공감,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교류사업과 후속 활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A Friendship to Last(영원히 빛날 우정)'입니다.

Christine Dador (Pen Pal Project Member, 2016-2017)

"2015년, 저는 한국 선생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고 저희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시던 한국 선생님께 직접 배우는 것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진심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펜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Erica Mae Macabingkel (Pen Pal Project Member, 2016-2017)

"2015년,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과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함께 한 시간은 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의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문화 감수성이 높아졌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그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Elisha Jabinal (Pen Pal Project Member, 2018)

"이 사업을 통해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한국 친구와 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지요. 하지만 사랑, 진심, 친절과 같은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통하고 친구가 되었답니다."

Rochelle Sandigan (Pen Pal Project Member, 2018-2019)

"펜팔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책임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포스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글을 쓸 때마다 인종 차별적이거나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Jason Rivero (Pen Pal Project Member, 2018-2019)

"펜팔 프로젝트에서 잊을 수 없었던 활동은 '한국 문화 카라반(Korean Culture Caravan)'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친선 관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는 필리핀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청년의 시기를 십분 활용해 앞으로 다가올 삶의 어려움에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꿈꿔왔던 미래, 즉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Ms. Pacita F. Masapol (OIC Assistant Principal, Las Pinas National High School)

"Las Piñas National 고등학교는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뿌리를 둔 펜팔 프로젝트 등 저희 학교의 여러 다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파견교사였던 박신애 선생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 SPFL-한국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가 더욱 넓고 깊어지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와 협력을 장려하는 세계시민이 되어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 과정과 학교 활동에 GCED를 반영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7 세계시민교육 실천이야기

· 이호석

지금부터 태국 파견교사 호떡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이야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앗디캡!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태국 방콕 서북쪽 방향에 있는 나콘빠똌 주의 Ban Sa Nam Som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던 파견교사 이호석입니다. 정말 가족 같은 태국 학교 선생님과 항상 밝고 열정적인 태국 친구들과 함께 했던 4개월은 정말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의 교사관과 교육관에 있어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환점이 되어준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파견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꼭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태국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하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즐겁게 잘해내는 모습에 '여태 내가 너무 학생들을 믿지 못했구나, 다치지 않을까 울타리에 가두어 두었구나' 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생들의 힘을 믿고, 학급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둘째로 태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과 수용성이 모두 높았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의 친구들은 다문화 감수성은 높은 반면, 수용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태국 친구들처럼 수용성까지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세계시민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학급에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세계시민성을 갖추는 것이 미래 인재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직한 17년도 후반부터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학급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학급의 일원으로 정해진 학급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구역을 청소도 하고, 규칙을 어겼을 시에는 정해진 벌칙을 학생들과 똑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학급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 반은 더 활발하게 상호 소통하는 학급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이듬해인 18년도부터 저는 학급 특색을 <세계시민교육>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체험교육,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실, 찾아오는 환경교실 등 다양한 외부 교육을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장소로도 SDGs를 실천하고 있는 기관(국립생태자연박물관 등)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으로 1년에 17차시 정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이 필요할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세계시민의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 예로 19년도에는 SDGs 실천방법을 로봇으로 소개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챌린지(Robot Software Challenge, RSC) 대회에서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최우수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파견이후에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한 교사이기에, 저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잘 이끌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 예로 19년도에는 경기도 세계시민 선도교사(GCED Lead Teacher)에 위촉되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도교사 활동으로 저는 여러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활동을 공유하고 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계시민 선도교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힘쓰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많은 선생님들께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단위인 동학년 그리고 우리 학교부터 좋은 세계시민교육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은 시작이 어려웠지, 한 번 나눔을 실천하고 나니 그 이후로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다른 학급, 학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취지를 설명해주고, 함께 신청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기회가 닿아 저는 19년도부터 더 넓게 세계시민교육을 나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파주 교원 다문화 역량 강화 이중언어 자율연수>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베트남어, 중국어 등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이중언어 공부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 그 나라의 학생이 한국 학교로 왔을 때 잘 적응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는 파주 다문화 교육 지원단에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다문화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19년도에 운영하였던 이중언어 자율연수를 다문화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다문화 교육자료 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수로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국 파견이후에 작은 것부터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현장에 저는 실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에게 반환 점이 되어준 태국 학교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19년도에 태국 파견학교를 다시 한 번 방문했었는데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다시 아이들과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제가 준비한 컴퓨터나 과학 수업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협력교사 Ant와 함께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하루 빨리 COVID-19가 종식되어서, Ban Sa Nam Som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다시 방문하여 봉사하고 저도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한국에서 조금이나마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저의 파견 이후 후속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세계시민교육은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학급부터, 다음은 우리 학년, 더 나아가면 우리 지역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에는 훌륭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 절친한 자매들

· Henna Sehgal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페낭(Penang) 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한국-말레이시아 교육교류사업에서 파견교사 배치학교 협력 교사로 활동한 Henna Sehgal입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Sisters From Different Mothers"입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것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로 파견오신 두 분의 훌륭한 선생님인 강세은, 민혜영 선생님의 협력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교육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사업 참가를 통해 얻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저의 시각을 바꿔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저희는 함께 '펀러닝(fun learning)'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펀러닝은 다양한 게임, 이야기, 연극, 예술, 서예 등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교 간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체계와 모습에 대한 경험을 교류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 학교인 SK Minden Heights 초등학교는 한국의 교육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학교들이 저희 학교와 협력한 한국의 학교들입니다. 저희는 함께 문화 활동 교류와 더불어 교실 안팎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학생들은 이메일, 화상통화, 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 이야기, 한국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책갈피 만들기 수업, 미술 프로젝트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간 교류를 통해 저는 지난 2018년도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H.E.A.L 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H.E.A.L 포럼은 Heritage(유산), Environment(환경), Asian Culture(아시아 문화), Language(언어)의 줄임 말입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세계시민의식이었으며, 단합의 중요성과 교육, 평등한 권리, 공정함, 지속가능성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여수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간 22명의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22명의 한국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과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즐거운 수학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선생님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교수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쌓인 우정이 저와 저의 동료인 한국 선생님들을 통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가 진행한 모든 활동 장면들을 담은 멋진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시민 관련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하는 귀중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속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주의를 다루는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였고,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양국 학생들끼리 상호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함께 하는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궁금했던 점을 많이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의 바탕이 되는 소통이 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과 저는 후속 활동을 사업 참여 이후에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시아와 그 주변을 공부하며, 한국 선생님들은 매년 저를 만나러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온라인 에세이 작문 등 저희 학교가 조직한 국제 프로그램에 한국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도 하셨으며, 한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저희들의 후속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활동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21세기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저는 성장했고, 저의 동료인 한국 선생님들과 저, 그리고 학생들은 "배우고, 배우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들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관계를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문화주의를 중시하고, 학생들이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배우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사업 참여를 통해 만든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양국을 오가며 여러 출장과 수학 여행의 경험을 쌓았고, 한국 교사들을 제 집에 초대하여 가족들과 만나기도 했으며, 함께 저희 학교에 다시 방문하여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